제 로 환 경
대표 조 진 우
Mobile:010-5506-7215
E-mail:jojinwoo58@daum.net
특수청소(화재,유품정리)
일반청소(공장, 상가) 외벽, 준공청소)
철거(상가,원상복구,폐기물)
에어콘 청소
체인점모집(청소기술전수)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4258호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보문산 생태요양병원 (042) 222-5567
암
재활 면역 영양식단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급증…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10대

경찰청, 6개월 집중단속 2925명 검거… 청소년사범 1035명으로 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6개월여에 걸쳐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29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2925명 중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는 2358명(80.6%)이고 도박사이트 제작 · 운영 · 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567명(19.4%)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619억원을 환수하고, 대포계좌 142개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68곳의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을 요청했다.

대전에서도 청소년 도박범죄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규칙이 단순한 홀짝 · 사다리 · 페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 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오던 청소년 33명도 함께 적발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19세 미만)가 1035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73명, 30대 551명, 40대 396명, 50대 188명, 60대 이상 82명 등의 순이었다. 피의자 직업 역시 학생이 1035명으로 35.4%를 차지했으며, 무직이 20.9%, 사무직 18.8%, 전문직 1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10대) 1035명 가운데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는 1012명(97.8%)이고 도박사이트 제작 · 운영 · 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23명(2.2%)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 명의로 된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 절반 가까이는 '친구 소개'(498명 · 48.1%)로 처음 도박사이트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유인 경로로는 온라인상 도박광고(35.9%), 금전적 욕심(12.1%)이나 호기심(3.9%) 등이 있었다.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41.9%)가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도박(19.8%), 온라인카지노(17.1%), 파워볼 · 슬롯머신(14.7%), 캐주얼게임(6.5%)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다시 특별단속을 통해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 · 상습 도박 행위자 등을 집중적으로 검거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 ·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 정보통신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 · 학교 · 인터넷사업자 ·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대전교육청, 관내 학교장 대상학교폭력 예방 교육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5일 우송대학교 우송도서관에서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갈등 조정의 이해와 성인지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 학교장 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MRO,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3% 전망… 지난해比 0.9%p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은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MRO가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 · 점검하고, 회원국 경제 ·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을 단기 위험 요인으로 보았으며,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을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및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및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먼저, AMRO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국 경제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태선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 폭행에 대한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해"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선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 · 부당한 요구'(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행위에 대응방법에 대해선 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 · 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1.4%에 달했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 · 욕설 민원 등의 제한 · 차단과 함께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를 기록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3.3%였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했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1층

세종시, 정부합동평가 특 · 광역시 종합 1위

합동평가 역대 최고 성적… 정량평가 · 정성평가 모두 1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특 · 광역시 부문 정량 · 정성평가 모두 1위를 달성하는 등 시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제도다.

평가는 ▲정량평가(목표달성도) ▲정성평가(우수사례 선정) ▲국민평가(우수사례 선정)로 나눠 이뤄진다.

시는 정량평가에서 83개의 지표 중 80개(96.4%) 지표의 목표를 달성해 특 · 광역시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지표 목표 달성이 10.7%포인트 상승해 평가 대상 지자체 중 실적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정성평가에서는 17개 지표 중 7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특 · 광역시 부문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성평가는 지자체 다양한 정책 중 우수정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세종시 주요 추진사업인 직장맘 지원센터 개소,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등 아동 · 여성 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원도심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문화접근성 확대 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정성평가 1위를 차지했다.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민-관의 하모니, "세종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최초 구현 ▲다정다감 세종시: 다정하게 시민의 가정에 다가감 ▲세종은 지금 아이돌(봄) 전성시대다.

또 ▲세종시는 지금도 미래도 청정해! 청소년 정책의 해법은 청소년에게 ▲방방곡곡 문화가 피어나는 이곳, 세종시로 초대합니다 ▲불법현수막은 ZERO, 재활용은 UP:광고물 정비도 스마트한 세종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세종자치경찰이 시민과 함께합니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 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시 행정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아산시, 경찰대학과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2025년 아산시 승격 30주년 맞아 '관광의 해' 선언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4일 경찰대학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아산시장, 경찰대학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양 기관의 보유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홍보 추진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경찰대학 및 가족 대상) ▲관광지 입장료 및 시티투어 버스 탑승료 할인 ▲경찰대학 내부 견학 프로그램 지원(가상음주체험, 경찰 오토바이 탑승 등) ▲각종 관광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경귀 시장은 "2025년은 통합 아산시 출범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진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경찰과 경찰 가족분들이 아산의 문화예술 및 관광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내 기관 및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방한일 의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3년 연속 수상

충남형 농민수당제 공론화,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등 주민생활편익 증대 기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 정치 대상' 시상식에서 주민 생활 편익 확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거버넌스 지방 정치 대상은 올바른 자치 분권 활동을 확산 시키고,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기초 · 광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 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방 의원은 연구 모임을 통한 충남 형 농민 수당제 최초 공론화와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균형 기반 조성 등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 시키는 거버넌스 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방 의원은 "지방 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 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 충남의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방한일 의원은 제11~12대 충남도 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현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충남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책임지고 있다.

예산=박제화기자

이종만 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쌍용123동, 국민의 힘)이 발의한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종만 의원은 "최근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하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하여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및 대금 지급사실의 공지를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관리는 곧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연결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 감독의 철저한 관리로 공사의 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원활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보령시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대표위원 최은순 위원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24일 의장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4월 24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14일간 2023회계연도 재무운영의 적법성 등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위원 선임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 조장현 의원과 민간위원으로는 김장화(前대천4동장), 한봉진(前성주면장), 백복기(前대천2동장), 박병혁(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령시 CCTV 관제센터 1층 회의실에서 ▲2023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되며, 검사내용과 권고개선사항 등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선임된 최은순 위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통과의례로써의 결산검사가 아닌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예산에서 정한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정책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결산검사가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충남도의회 정책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1건 선정

문화관광, 안전, 주민자치, 교육행정, 기후변화 등 지역현안 해결 위한 과제 제시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4일 2024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 · 선정을 위하여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이 제출한 2024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11건을 심의 · 선정했다.

이번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선정 과제들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주민자치, 기후 · 환경, 스마트농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과제는 구체적으로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 연구 용역(논산시를 중심으로)(대표의원 윤기형) ▲홍성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 전략 마련(대표의원 이종화) ▲의용소방대 · 자율방범대 · 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 및 지원방안 연구(대표의원 윤희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대표의원 전익현)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대표의원 이현숙) ▲해수욕장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개선 방안 연구(대표의원 최광희) ▲이어령 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대표의원 김응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건강도시 발전-전인건강생활프로그램(대표의원 이철수)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용역(대표의원 김민수)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용역(대표의원 유성재)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 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안 연구(대표의원 김도훈)이다.

김정환기자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 대산노인대학 특강

'간신히 인생' 주제로 특별 강연 펼쳐… 뜨거운 호응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이 24일 대산노인대학을 찾아 '간신히 인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대산노인대학 김재성 학장의 초청에 의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수강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이어졌다.

김맹호 의장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 말씀과 ▲잊지 말아야 할 징기스칸 어록 등 평소 의정활동 철학을 소개한 후 건강하고 보람있는 인생의 지혜 이야기를 풀어냈다.

농사를 지으며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 주변에 베풀며 얻게 된 교훈 등을 이야기하며 인생사와 관련된 수강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맹호 의장은 "세월이 지나고 철들어보니,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역들을 성장시켰다."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자식을 키우고 이웃 어른을 공경하며 살겠다." 다짐한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서산=김정한기자

홍성군의회 '제6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3개 분야 수상 쾌거

홍성군의회는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3개 분야(사회경제활력 증진, 갈등해소 사회통합, 공동체역량 증대)에서 권영식(국민 의힘), 문병오(더불어민주당), 최선경(더불어 민주당) 총 3명의 군의원이 수상하는 영예와 쾌거를 이뤘다고 알렸다.

이번 공모대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응모접수를 시작으로, 2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심도깊은 심사절차 후 홍성군의회는 ▲사회경제활력 증진 분야 우수상(권영식 의원), ▲갈등해소 사회통합 분야 우수상(문병오 의원), ▲공동체역량 증대 분야 최우수상(최선경 의원) 3개 분야를 수상하였다.

김정환기자

"준비도 안된 황포돛배 사업, 무작정 예산 주나"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 예산타령 시 집행부에 강한 유감 밝혀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중단 위기를 '의회의 예산삭감 탓'이라고 주장한 공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임 부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의회에서 정당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반 페이지가 전부였다"며 불성실과 의회 경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재정투자 심사를 할 수 없고, 사업비 60억원 이상은 예산 편성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임 부의장은 "하지만 총 8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했고, 그마저도 광역자치단체의 심사가 아닌 자체 심사로 갈음했다"며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 중 관광과장은 해당 사업에 협의를 마친 세종시 · 부여군과 달리 환경부 · 환경단체 · 문화재과와의 협의가 안된 상태라고 했다."며 협의도 안된 사업비를 무작정 승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여군에 확인한 결과 공주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이곳과 협의까지 마친 일이라고 한 시 주장에 대해 거짓 발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따졌다. 임 부의장은 "부여군은 해당 사업을 대부분 민간투자로 진행했고 군에서는 약간의 인프라 지원만 해 주는 정도"라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의 담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 공산성 등 주변 관광지 보전 문제 등이 얽혀 환경부 · 환경단체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사업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태도가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 정당한 예산심의 결과를 도출해 낸 시의회에 '시정 발목잡기'로 매도하며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부의장은 이 사업에 대해 세종시 · 부여군 · 환경부 · 문화재청 ·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등을 열어 다수의 의견을 먼저 들을 것을 제안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성을 높이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9일(월)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문화예술 중흥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중간보고와 함께,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 정책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우선 다른 지역에서 수립되었던 문화비전계획을 참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재환 부산연구원 부원장이 "부산 2030 비전과 전략"의 수립 과정을 발표하고,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전 문화예술 중흥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에 관해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이 브리핑 형식의 중간보고를 한다.

2부에서는 민선 8기 대전시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하여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과 필요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전세종연구원 한상헌 책임연구위원은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문화예술계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대전문화예술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자생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들이 제기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현재 수립 중인 대전 문화예술 중흥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복기자

daejeontoday.com

▲ 연구진이 COMB 건조장치에서 시료를 수집하고 있는 모습.

가축분뇨, 하루 만에 탄소 잡는 바이오 자원으로 바꾼다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급속 전환, 탄소중립 실현과 초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하루 만에 탄소 잡는 '흑색 금(Black gold)'으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 대기청정연구실 유지호 박사 연구진이 축산 농가 현장에서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즉시 전환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공정을 활용하면 일일 10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전환할 수 있다.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곡물의 줄기, 동물의 배설물, 음식물 찌꺼기 등의 유기물질을 350도(℃) 이상의 산소가 희박한 조건에서 열분해해 만든 물질. 바이오매스가 토양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데,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차로 만들면 바이오매스에 포함된 탄소의 80%를 바이오차 내에 가둘 수 있어 '탄소 감옥'으로 불린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5천만 톤이다. 이 중 87%는 장기간 발효해 퇴비, 액비로 활용하는데, 발효되기까지 60일 이상이 소요되며 장기 처리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300배 강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N2O)가 발생한다. 또, 초미세먼지와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NH3)도 함께 배출되는데 총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70%에 달한다. 이로 인한 악취 민원은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바이오차가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전환하면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배출을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고 1,000년 이상 가둬놓을 수 있어 축산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차를 축산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개선과 바이오차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MTB 공정의 핵심은 축분이 지닌 수분을 20% 이하로 줄이기 위한 탈수 기술과 건조 기술이다. 연구진은 에너지연이 보유한 건조 공정, 한국기계연구원의 탈수 공정, ㈜두리테크의 전처리 공정, ㈜유기산업의 열분해 기술을 모두 모아 통합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 로터리 킬른 방식* 대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10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일 수 있다.

공정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스크류 유형의 고액 분리기부터 시작된다. 분리기는 탈수 역할을 하며 축분이 지니고 있는 수분을 60% 이하로 낮추는데,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는 로터리 킬른 방식 등 열을 이용한 기존 공정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 탈수를 거쳐 덩어리 모양으로 분리된 축분은 ㈜두리테크가 개발한 3단 블레이드 분쇄 장치에 의해 1cm 이하로 크기로 잘게 쪼개진다.

이후 에너지연이 개발한 F-COMB 건조 장치를 이용한다. 장치 상부에서는 축분이 떨어지고, 하부에서는 열풍이 투입되는 형태로, 축분이 지그재그로 떨어지게 해 열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단 1분의 짧은 시간으로도 축분의 수분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 건조된 축분은 ㈜유기산업이 상용화한 TLUD 열분해 반응기를 이용해 바이오차로 전환된다.

해당 공정은 충남 청양군의 실증단지에서 일일 1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실증됐다. 연구진은 100시간의 공정 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쳐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특히 에너지연 연구진이 개발한 F-COMB 건조 장치는 에너지효율, 제작비용, 편의성에서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는 물론 중국, 호주, 인니 등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추진하는 해외 수요까지 확보하고자 일일 100톤 이상의 처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유지호 박사는 "국내 가축분뇨의 대부분은 퇴비화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부재하다."며, 개발한 공정은 가축분뇨를 현장에서 바이오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공정으로 축산분야의 환경문제,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두리테크, ㈜유기산업, 칠성에너지,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 Manure To Biochar: 축산분뇨를 바이오차로 제조하는 탈수-전처리-건조-열분해 통합공정

* 로터리 킬른 방식: 원통을 기울게 설치해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열풍이나 불을 통해 원료를 가열하는 방식으로 시멘트 공업, 알루미늄 제련 등에 활용됨

* F-COMB(Flexible-Counter flOw Multi-Baffle): 역흐름 다중 유연 방해판 반응기로 다중의 지그재그로 배치된 방해판에 의해 고체와 역흐름 열풍의 접촉을 최대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조/열분해 장치

* TLUD(Top Lid Up-Draft): 상부에서 착화하여 아래로 타면서 내려가게 만들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방식. 건조된 축분의 온도는 350℃에 이르며, 열분해를 통해 바이오차를 생산

이정복 기자

▲ 연구진 단체사진(윗줄 왼쪽 세번째 연구책임자 유지호 책임연구원)

"대전 대표 유망 소상공인을 찾습니다"

오는 5월 17일까지 모집, 4개 업체 선정 · 성장 자금 2천만 원씩 지원

대전시는 지역 내 역량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소상공인 발굴 ·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 발굴 · 지원'은 지난해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성장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5월 17일까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대전지역 내 사업장(본사)을 운영 중인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4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1:1 맞춤형 성장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품 및 기술개발,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성장 자금을 업체당 2,000만 원 지원하며, 중간평가 후 다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2,500만 원의 2차 성장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이메일(post@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성장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이 대전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유망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와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3년 유망 소상공인으로 ▲몽심 ▲타향골 ▲왔다떡방 ▲맛존매콤닭불고기를 선정 지원했으며, 지원을 통해 일부 업체의 경우 생산성 200% 증가, 매출액 30%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김태선 기자

서대전역,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 시행 한국철도 서대전역(역장 김선형)이 지난 24일 오후 서대전역 광장에서 중부경찰서, 서부소방서, 1970부대 2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의회

대전농협, 우리 농특산물 답례품 선정 활성화 등 논의

농협중앙회 대전본부(본부장 김영훈)는 지난 23일 대전본부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및 농협은행, 계열사 담당자 10여명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확대와 우리 농특산물 답례품 선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협 시 · 도 지역본부중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지역본부주관 회의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확대를 통한 도농 상생과 우리 농산물 답례품 판매로 인한 농업인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상품과 연계한 홍보, 기부자 선호도를 반영한 농특산물 답례품 구성 및 디자인, 농특산물 답례품 홍보방식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회의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의회 조직 구성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우리 농특산물 답례품 선정 활성화 아이디어 공유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방안 토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훈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대전지역 농특산물 소비확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대전 출신 출향인 등의 애향심이 고취되며, 기부금 재원 확대로 대전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대덕구 오정동,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 나서

가정용 구급함 · 공구 세트 등 지원

대덕구(구청장 최충규) 오정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섰다.

오정동은 오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영재)와 함께 '마을 복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구급함 및 생활 용구(가정용 공구 세트)를 지원하는 '나 혼자도 잘산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구의 53%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 민 · 관이 머리를 맞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동은 1인 가구 전입 신고 시 복지상담창구로 연계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용 구급함 또는 가정용 공구 세트를 지원하는 등 복지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발굴한 위기가구는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재 오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살기좋은 오정동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송선헌 오정동장은 "1인 취약계층 가구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라며 "활발한 민 · 관 협력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 정●●●

대전신계중학교 새내울관 개관식

설동호 대전시교육감=26일 오후 2시 30분 대전신계중에서 열리는 대전신계중학교 새내울관 개관식 참석.

달빛 야외도서관 개막식

박희조 동구청장= 26일 오후 7시 동구청 1층 광장에서 열리는 2024년 동구 달빛 야외도서관 개막식에 참석.

중구새마을회 회장 이취임식

김제선 중구청장= 26일 오후 3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중구새마을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주민자치협의회 현판식

서철모 서구청장= 26일 오후 5시 30분 도마실어울림플랫폼에서 열리는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현판식 참석.

사랑나눔 바자회

정용래 유성구청장= 26일 오후 2시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주관 「사랑나눔바자회」에 참석.

중구 상반기 세외수입 실무교육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용으로 업무역량 제고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5일 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담당 직원 6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담당자들의 새로운 시스템 적응 및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이론 및 실습 병행교육으로 실무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김제선 청장은"이번 교육으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세입행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간의 위탁 협약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클라우드 · 빅데이터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기반 전국 통합시스템이다.

5월 가정의 달 선물 상품 제안 행사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정승욱)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 상품 제안 행사를 제안한다.

먼저 건강선물 상품의 대표 품목인 홍삼 브랜드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정관장에서는 홍삼정 에브리타임 리미티드, 천녹정 등 인기상품을 24일부터 5월17일까지 품목별 5~10% 할인한다. 더불어 40만원 이상 구매 시 정관장 멤버스 포인트 2만 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천제명에서는 단 2일만 진행하는 전품목 1+1 행사를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홍삼농축액 골드, 편한홍삼 농축액마일드, 홍삼녹용 시그니처 등 천제명의 대표 상품들을 하나 가격에 한개 더 구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구매 금액대별로 10% 상당의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26일부터 5월7일까지 진행한다.

비타민 브랜드들도 가정의 달 특별 행사를 26일부터 5월7일까지 진행한다.

메이올웨이즈(동국제약)에서는 다양한 비타민 제품과 침향보감, 흑염소진액 등을 품목별로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GNC에서도 골드회원 및 신규회원 가입 대상 제품 4개 이상 구매 시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대상웰라이프, 팔레오, 뉴트라라이프 등도 품목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물 제안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블랙야크키즈에서는 5월6일까지 본매장에서 15만원/20만원/30만원/40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4만원/6만원/8만원을 각 금액할인 하는 쇼핑지원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마이리틀타이거에서는 어린이날 선물 제안 행사를 역시 5월6일까지 진행하며 타이거 샌드 모래놀이세트 + 구름 클레이 세트, 타이거 도우테이블 + 도우 컵케이크샵 + 도우 컬러팩 세트 등 다양한 장난감 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더불어 구매 금액대별로 브랜드 감사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타카플레이카페에서는 5월 한달 동안 슬라임 만들기, 유화그리기, 미니블록 만들기 등 아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소중한 분들을 위한 아웃도어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먼저 디스커버리, 아이더, 나우,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K2, 네파 등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아웃도어 가정의 달 선물 아이템 특집전' 행사를 26일부터 5월2일까지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한다. 네파는 봄/여름 상품을 40~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디스커버리는 티셔츠, 트래킹화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블랙야크도 티셔츠, 팬츠 등을 20~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K2에서도 재킷, 트래킹화, 팬츠 등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송병배기자

갤러리아타임월드, 눈길 끄는 색다른 팝업스토어 퍼레이드

갤러리아타임월드가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색다른 팝업스토어를 연달아 유치한다.

먼저 지하 1층 남성명품관에 글로벌 전기 자전거 브랜드 '슈퍼73(SUPER73)'의 팝업스토어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운영된다. 슈퍼73은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바이크 마니아들이 70년대 레트로 감성의 클래식 미니바이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전기 자전거 브랜드로 지드래곤(GD), 이찬혁 등 국내외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타고 다니는 모습이 화제가 돼 MZ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역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슈퍼 73의 플래그쉽 모델인 S-Adventure를 포함해 S2, K1D 모델을 만나볼 수 있으며 금액 할인, 사은품 증정, 시승 체험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지하 2층에는 부엉이 장식품, 체코 크리스탈 화병으로 대표되는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 '준 갤러리'의 팝업스토어가 2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돼 다양한 인테리어 장식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4층 영캐주얼 매장에서는 지난 2월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던 홈패브릭 브랜드 '폴앤안나'의 팝업스토어가 다시 찾아와 생동감 있는 컬러의 부드러운 순면 원단 파자마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인기 디저트 팝업 스토어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는 고메이494의 G-LAB에서는 탄방동의 파이 전문 카페 '원주율파이샵'의 수제 파이와 '토라네코'의 치즈케익을 5월2일까지 판매한다.

더불어 각 층별 행사장과 브랜드에서도 만연한 봄을 맞아 다양한 상품행사가 펼쳐진다. 6층의 남성의류 '이로맨'과 7층의 골프웨어 '보그너'에서는 전년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이월상품전을 진행하고 8층의 스포츠 전문관에서는 '빈트릴', '크록스', '아디다스', '반스' 등이 각각 특집전을 펼쳐 일부 상품들을 주말 동안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송병배기자

도심 속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도심 속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무궁화동산 조성은 지난해 9월 산림청 공모사업인 2024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상지는 동구 낭월동 907번지 일원이다.

구는 5월까지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 300여 주를 식재하고 무궁화에 대한 정보가 담긴 안내판과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무궁화와 함께하는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무궁화동산에 식재 예정인 품종은 중심부에 단심(붉은색 무늬)이 없는 순백색의 배달계와 단심이 있는 단심계를 꽃잎 색깔에 따라 구분한 백단심계, 적단심계, 청단심계, 매우 연한 분홍색 꽃잎에 진분홍 무늬가 있는 아사달계 등이다.

김태선 기자

서구, 고질 민원 해결 소통의 날 운영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민원인의 고충과 불만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SOS(See Open Solve)-Day'를 반기별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법규에 따라 처리된 불만 업무, 3회 이상 반복된 민원, 다수인 관련 반복 민원 등으로, 구청 간부(국장, 과장)와 민원인이 직접 대면해 문제를 종결지으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See' 단계에서는 반복되고 고질적인 민원을 검토 및 선정하여, 해결이 시급하거나 다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업무 담당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민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Open' 단계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구청 간부들과 민원인이 대면 면담을 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경험 많은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해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Solve' 단계에서는 민원의 날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면담 결과를 작성해 공감을 통한 고충 해소에 집중한다.

SOS-Day는 구민들의 불편을 직접 듣고 민원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시간을 통해 갈등 조정 및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철모 청장은 "민원인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고충을 직접 해결함으로써 서구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SOS-Day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노력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동 정●●●

미용업 영업주 위생교육

최재구 예산군수= 26일 오전 9시 30분 예산문화원에서 열리는 미용업 영업주 위생교육 참석 .

장애인 한마당 잔치

이용록 홍성군수= 26일 오전 11시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30회 홍성군 장애인 한마당 잔치 참석.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성공 개최' 힘 모은다

충남도-계룡시-육군협회, 국제전시회 성공 및 계룡대 지속 개최 업무 협약

충남도와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국내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도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응우계룡시장, 권오성 육군협회장이 2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의 계룡대 정착 및 성공 개최를 통한 국방수도 충남 위상 강화 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와 계룡시는 전시회 홍보와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육군협회는 전시회의 계룡대 지속 개최 및 도민에게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3군본부와 육군훈련소, 또 산학연기관 30여 개가 밀집해 있는 국방의 메카이자 방위산업 육성의 전초기지"라며 "전시회가 충남에 완전하게 뿌리내리고, 미국과 비견되는 방산전시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육군협회 주최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는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에서 진행된다.

전 세계 50개국 방산 관계자와 국내 500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1500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투력 방호를 지원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각 분야첨단 방산제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상담회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담당기관 컨설팅 △스타트업 기술 시연 및 투자 설명회 △해외공식 대표단과 참가 기업 간 구매상담회 △참가 기업 신기술과 제품 시연 등이다.

육군협회는 한국관광공사는 복합전시산업(MICE)에 따른 1인 당 지출액을 내국인 22만 9259원, 외국인 223만 4605원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시회 기간 계룡시를 비롯해 충남에서 유발되는 소비 금액이 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아시아 최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4만 7000여 시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방수도 계룡시와 힘쎈충남의 브랜드가 한차원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성 육군협회장은 "전쟁과 분쟁 등으로 케이(K)-방산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와 계룡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올해는 국가적 행사로 치르게 됐다"며 "전시회가 계룡대에 정착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서 지자체와 육군협회가 상호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덕산면 사회봉사단체, 홀몸 어르신 이불세탁 봉사

취약계층 어려움 살피고 돌보기 앞장

예산군 덕산면 사회 봉사 단체는 지난 24일 덕산면 종합 복지 센터 앞마당에서 관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30여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 했다.

이번 봉사는 덕산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민간 위원장 박선희), 덕산면 적십자 봉사회(회장 이기남), 덕산면 주민 자치회(회장 박용환) 등 3개 단체가 협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단체 회원 30여명은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해 가정에 배달하는 원스톱 세탁 서비스 봉사 활동을 펼쳤다.

덕산면 사회봉사 단체는 매년 대한 적십자사 충남지사의 이동식 대형 세탁 차량을 지원 받아 지역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세탁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한 봉사자는 "이번 이불 세탁 봉사가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천우 덕산 면장은 "세탁 봉사에 함께한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예산군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오는 5월 13일까지 시행한다.

결산 검사는 재정 감사의 일환으로, 예산 집행과 관련한 회계 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며, 이번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은 대표 위원인 심완예 예산군 의원을 비롯해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군은 지난해와 달리 결산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사를 민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법령 등에 따라 회계 사무가 제대로 집행 됐는지를 점검하고 결산서 상의 세입·세출이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 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2023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 됐는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재정 집행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 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예산군,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첫걸음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예산군은 산업 통상 자원부 주관 '바이오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 사업은 질병의 치료·회복·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기능 활성화 제품'을 개발하고 의료 기관의 임상 실증을 거쳐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기 위한 연구·실증 센터 구축 사업이다.

군은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도비 191억4000만원(국비 150억원, 도비 41억4000만원)과 함께 군비 106억6000만원을 투입해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센터 및 플랫폼(거점) 구축, 해외 맞춤 제품화·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 바이오 특화 센터 협의 회와 함께 건양대학교·단국 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공동 기관으로 참여해 시장 맞춤형 기업 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및 유통 플랫폼을 통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첫 성과로서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센터를 건립해 국내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산업의 전국적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홍성군, 제안사업 심의부터 점검까지 주도적 역할 수행

홍성군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주체가 될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5명을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일련의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심의 및 선정, 사업 점검, 주민 의견 수렴 등 주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 검토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추첨은 성별과 거주 읍·면을 안배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청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7기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오는 5월 31일부터 2년 동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선정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 점검 ▲주민 의견수렴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기획감사담당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 제출 또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획감사담당관(041-630-15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환 기자

'홍성 잇슈창고' 프로그램 오는 4월말부터 본격 가동

홍성군이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입주 청년창업가 대상 창업프로그램을 오는 4월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군은 잇슈창고 입주 (예비)청년창업가 7개 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팀당 최대 3백만원) ▲창업스쿨 운영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전문 컨설팅 등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오피스 제공, 지역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협력사업도 수행할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기관 '충남산학융합원'과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의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했다.

올해 최종 선발된 입주기업은 ▲방방 방앗간(대표 방현진) ▲쓸만한 작업실(김예슬) ▲울림주식회사(전병훈) ▲온누리(조현희) ▲EATSSUE(이하진) 등 5개 업체와 정재영 대표와 전진표 대표가 예비창업자로 선발됐다.

선발업체는 홍성 한돈을 활용한 육가공품 개발, 홍성 로컬 특색을 담은 디자인소품 생산,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 브랜드 운영 등을 주제로 창업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산학R&D 협력, 일자리 창출과 기업 혁신성장에 특화된 충남산학융합원과 협력하여 잇슈창고를 청년창업 허브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글문화도시 세종,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새 시작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촉식… 한글 분야 전문가 참여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5일 시청 세종실에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한글문화도시 세종'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되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이날 위촉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인사혁신처,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까지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 지난 위원들의 임기 만료와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23.12월)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해 한글 등 문화도시 사업 관련 전문가로 이뤄졌다.

이들은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검토 및 제안 ▲문화도시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등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한글문화수도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한글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생태독성 검사로 안전한 물 환경 조성

세종보건환경연구원, 물벼룩 이용 독성시험 검사 확대 등 추진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경용)이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검사 시스템을 통해 수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연구원은 최근 공공하수의 수질검사 강화에 따라 생태독성 검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시험 공간을 확장하고 배양과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구매해 검사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

생태독성 검사는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인 물벼룩을 시료에 투입해 24시간 후의 치사율을 측정, 환경에 위해가 되는 유해화학물질을 확인하는 시험법이다.

이달부터 폐수가 유입되는 처리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검사를 확대해 연말까지 대상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독성 검사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전용 실험실을 조성하고 물벼룩 배양법을 습득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숙련도 평가를 통과하는 등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생태독성 시험을 개시해 매월 세종시 수질복원센터의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독성 검사를 하고 있다.

정경용 세종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독성 검사의 자족기능 확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생물검정을 통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원도심 추사거리 벼룩시장으로 활력 찾는다

예산군, 27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28개 부스 운영

예산군은 오는 4월 27일 오전 11시 추사 학당 주차장과 문화 공간 '모이슈' 등 추사거리 일원(예산로 194번길18-1)에서 올해 첫 벼룩 시장을 개최한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이슈 벼룩 시장'을 열 계획이다.

벼룩 시장에는 판매 14개소, 체험 8개소, 이벤트 6개소 등 총 28개의 부스가 준비되며, 여성 공예 단체인 꼼지락(대표 정가윤)이 예산읍의 핵심 원도심인 추사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

군과 예산군 도시 재생 지원 센터는 원도심 공동화 대응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해 빈 상가를 리모델링(새단장)하고 여성 거점 공간으로 '모이슈 1호점'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또 지역 정착을 원하는 청년 거점 공간 '모이슈 2호점'을 올해 6월 개소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사 거리 등 원도심 거점 공간에서 로컬 콘텐츠를 생산하고 방문객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수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거점 조성과 함께 벼룩 시장, 원도심 투어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예산 상설 시장 방문객들이 추사 거리 등 원도 심에서 군민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우/리/동/네

천안시 백석동 행복키움지원단

2분기 간담회… 다양한 사업 논의

천안시 백석동(동장 정우영)은 지난 24일 행복키움지원단 2분기 간담회를 백석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1분기 사업결과 보고 및 2분기 추진 사업 논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날 '오늘은 해피데이' ▲'난 안전하게 산다' 슬기로운 안전생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1사 1행키 결연사업장인 삼성전자서비스 천안두정센터와 협업하는 ▲'안전한 백석사랑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가정내 머무는 시간이 많은 저소득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에어컨 필터 청소 및 교체, 폭염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 개최 후 저소득가정 중고생 57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나누고 희망더하기' 도서구입 카드 전달식을 가져,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불당2동, 위기가정의 복합적 문제 해결 위한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개최

천안시 불당2동(박경화 동장)은 25일 동남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위기가정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불당2동 맞춤형복지팀의 주관으로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지원팀,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팀, 서북구 드림스타트센터,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가 함께했다.

이번 대상가구는 경제, 건강, 심리 등의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가구로 불당2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초기 개입부터 민·관 서비스 연계, 각 기관 연계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해온 가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 담당자들은 대상 가구 내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더욱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경화 동장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협업을 위해 동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안=김정환기자

목천읍 주민자치회, 꽃밭조성 천안시 목천읍 주민자치회(회장 임창근)는 25일 목천읍 주민 40명과 독립기념관 진입도로 인근에 패랭이꽃 등 봄꽃 3,500본을 식재했다.

양태모 개인전 'LIGHT-카르마&날다'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안동순)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 양태모 작가의 'LIGHT-카르마&날다'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인전을 준비한 양태모(b.1965~) 작가는 서양화가로 현재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개인전 40회, 단체전 300여 회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닥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재료의 다변화와 자유로운 형태의 도입 등 조각과 회화, 공예 간의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예술의 또 다른 영역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보여준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월요일은 휴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www.cfac.or.kr)을 참조하거나 시각예술팀(041-900-1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5월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43개 노선 63대로 확대

천안시, 시범운영 기간 현금승차 비율 3%→1.3% 감소 … 7월까지는 현금함 비치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시내버스 9개 노선 28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현금없는 시내버스를 43개 노선 63대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현금승차 비율이 2020년 5.3%에서 2021년 3.8%, 2022년 3.2%, 지난해 3%로 꾸준히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운영 기간 중 2개월 간 9개 노선 28대에 현금함을 비치해 현금·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결과, 현금승차 비율은 3%에서 1.39%로 급감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 시 업무 종료 후 현금함 수거가 필요 없고 현금함 교체나 수리 등에 소요하는 비용도 절감되며,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노선은 공영·마중·심야·도심순환급행버스와 도시형교통모델로 5번, 10번, 30번, 71번, 114번, 116번, 117번, 118번, 132번(양방향), 135번, 390번, 391번, 392번, 405번, 410번, 411번, 412번, 413번, 414번, 420번, 421번, 430번, 450번, 451번, 452번, 453번, 460번, 461번, 462번, 463번, 500번, 520번, 530번, 532번, 570번, 600번, 601번, 650번, 651번, 652번, 663번, 815번이다.

7월까지는 현금함을 비치해 현금·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시범기간이 끝나면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큐알(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차량 내 비치된 교통카드 발급, 계좌 이체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노선에 현금 결제 없는 시내버스 안내문과 안내판을 부착하고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또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시민 홍보에 나서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은 "3개월간 현금함을 병행 운행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편 민원을 수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저소득 독거노인에 LED초인종·리모컨 도어락 지원

LED초인종 100대, 리모컨 도어락 100대 등 총 200대 지원

천안시가 5월 31일까지 '저소득 독거노인 LED초인종·리모컨도어락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천안에 거주하며 거동이 불편하고 난청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LED초인종과 리모컨 도어락을 지원한다.

지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희망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LED초인종은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불빛으로 방문자가 왔음을 알려주며, 리모컨 도어락은 도어락에 원격 무선 리모컨을 추가로 설치해 버튼 하나로 현관 개방이 가능하다.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 맞아 지역사회 온정 나눔

㈜신세계푸드 천안공장·(사)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 소외계층에 빵 전달

㈜신세계푸드 천안공장(공장장 조세광)과 (사)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지부장 박창호)는 25일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 행사를 앞두고 소외계층에 사랑의 빵을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신세계푸드 천안공장과 (사)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는 나눔행사를 열고 아동·장애인시설 등 총 29개소에 빵 2,140개를 전달했다.

그동안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는 2007년부터 매년 제과협회 천안시지부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만든 빵 연간 5만여 개를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조세광 공장장은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를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맛있는 빵으로 행복한 순간을 나누고자 나눔에 동참했다"며 "여러해 동안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해 온 제과협회 천안시지부와 함께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의 빵에는 지역과 연대와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돼 있다"며, "나눔을 통해 '빵의 도시 천안'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신세계푸드 천안공장과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68개 동네빵집에서 열리는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는 천안 딸기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빵을 1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천안 딸기우유와 흥타령 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국민여가캠핑장, 재정비 마치고 5월 재개장

오는 5월 1일 재개장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흠, 이하 공사)에서 운영 중인 천안국민여가캠핑장이 본격적인 캠핑시즌을 맞아 재정비를 마치고 오는 5월 1일 재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캠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휴장에 들어간 국민여가캠핑장은 최근 법사면 복구 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시설물 개선을 마무리했다.

현재 5월 달 예약 진행 중이며, 예약은 국민여가캠핑장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일반캠핑장(9면)이 주중 2만원, 주말(성수기) 2만5천원, 오토 캠핑장(28면)이 주중 2만5천원, 주말(성수기) 3만원이며, 천안시민, 다자녀, 장애인 등은 30%할인이 적용된다.

한동흠 사장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용연저수지 경관을 가진 천안국민여가캠핑장에서 이용객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차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 개최

가정 내 방임으로 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소년 대한 지원방안 논의

천안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5일 1차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실무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사례 발굴과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기청소년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위해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천안시청소년재단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가정 내 방임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사례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경환 센터장은 "한 명의 청소년이 심리·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온 동네의 관심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촘촘한 청소년안전망 내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룡동, 착한이웃 아파트 업무협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민 관이 함께하는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

천안시 청룡동(동장 고혜경)은 지난 24일 24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문자)과 함께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청룡 착한이웃 아파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세대의 76%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룡동의 특성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협약을 통해 각 아파트와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파트 밀집 거주지역의 특성상 이웃간 교류와 소통이 적어 소외되기 쉬운 복지 위기가구와 고립의 위험이 큰 고독사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는 단지 내 관리비 장기체납 등으로 복지 위기 징후가 보이는 가구를 제보, 복지제도 홍보 등에 협조하고, 청룡동은 복지상담, 공적 급여 연계, 통합사례 관리 등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를 지원하며, 행복키움지원단은 복지자원 발굴 및 후원물품 전달, 생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에 세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착한이웃 아파트'는 ▲구성휴먼시아 ▲구성아이파크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청당마을벽산블루밍 ▲산운마을부영 사랑으로 ▲청당서희스타힐스 ▲행정타운센트럴두산위브2차 ▲청당마을신도브래뉴 ▲신성천안미소지움 ▲청수중흥S클래스 ▲청당 코오롱하늘채 ▲청당 한양수자인블루시티 ▲청솔 LG,SK ▲청수 경남아너스빌 ▲청수 극동1차 ▲청수 극동2차 ▲청수 우미린 ▲청수 포레나 ▲천안청수한양수자인 ▲청수 현대아파트 ▲청수버들휴먼시아2단지 ▲청수산운마을휴먼시아5단지 ▲향목그라비스 ▲호반 써밋 포레센트이다

이문자 단장은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고 돕는 착한이웃아파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복지자원 연계 등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혜경 동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룡동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안전망이 구성되어 기쁘고, 주민밀착 전달체계로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에 놓인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동 정

선포식

박상돈 천안시장 = 26일 오후 2시 쌍용도서관 북카페에서 열리는 '2024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에 참석.

천안시, 재난발생 우려 건축물 등 사전에 차단

천안시는 6월 21일까지 재난 발생 우려 건축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유원시설,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숙박시설, 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등 총 96개소이다.

집중안전점검은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위해 건축(구조), 토목, 가스,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실시 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보강 후속 조치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 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장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배창우 청장)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슬로건은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첫째,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둘째,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셋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한다.

송병배기자

논산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실시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22일부터 26일까지 노성산 일원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등산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산악사고를 대비해 구조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악구조장비 활용을 통한 전문구조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당진소방서, 전 직원 대상 체력검정 실시 당진소방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당진실내체육관에서 당진소방서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은 기초체력 증진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체력검정은 당진소방서 직원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주소방서, 산림 인접 문화재 화재대비

화재대비 현지적응 소방훈련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산림 인접 문화재 화재대비 현지적응 소방훈련 및 관계인 대상 봄철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공주소방서 현장지휘팀, 유구119안전센터와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 인접 문화재의 화재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차량 진입로 확인 및 부서 위치 확보 ▲신속하고 체계적인 출동체계 확립 등이다.

또 봄철 화재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관계인 대상 화재예방 특별교육과 안전지도를 병행했다.

류일희 서장은 "봄철 화재의 경우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라며 "문화재 및 인근 산림 등 화재 발생을 막아 문화유산을 지키고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소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예산소방서, 새롭게 만들어진 슬로건 바탕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확산 홍보

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2024년 새롭게 만들어진 슬로건을 바탕으로 소방 안전 교육 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 지역사회 및 정부가 함께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소방서는 현재 ▲다양한 군민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소방서 및 유관 기관 홈페이지 게재 ▲페이스북 등 SNS 팝업 홍보 ▲소방 안전 교육 시 패러다임 전파 등의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성찬 서장은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대전현충원, 5월 이달의 영웅 스토리

숭고한 희생 고동우 교사 선정

국가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은『국립대전현충원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영웅』누리집(www.dnchero.kr) <온라인 홍보관>을 통해 5월 이달의 영웅 스토리로 스승의 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을 맞이해 물에 빠진 제자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고동우 교사를 선정했다. 송병배기자

세종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개소 적발

운영자 6명 검찰에 송치… 탈세 · 안전 위협 행위 지속 단속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하고 6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행위는 소방안전시설 미비,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숙박업소 청소 · 소독 등 위생관리 취약,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를 야기한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 26일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숙박업소 대상으로 중점 단속, 수사를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31곳과 업소 운영자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6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들은 1인이 3개소에서 최대 12개소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영업소 폐쇄 및 불법 소득 세금추징 등을 관련기관 · 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시 누리집 시민의 창과 민원콜센터(044-120)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아산시보건소 '이순신 축제'

대비 숙박 업소 점검

아산시 보건소는 지난달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것을 대비해 숙박업소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숙박업소 소독의무대상시설 144개소 중 적정 소독실시 의무 미충족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내용은 법정 소독 실시 횟수 준수 여부, 소독 필증 보관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규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홍보해 소독 참여를 독려하고 추후 재점검을 통해 소독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 · 부당광고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 ·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 · 부당광고를 반복 · 상습적으로 내보낸 업체의 식품 ·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 · 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새내기 법무보호위원 대상

현장중심의 소양교육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지난 24일 새내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소양교육에는 2024년 2분기 위촉 예정인 신입 법무보호위원 18명이 참여했으며, 법무보호위원 운영 규정(법무부 훈령) 안내, 법무보호사업 소개, 선배 자원봉사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배 자원봉사자와의 대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대덕구위원회 이성금 회장이 강연자로 초청돼 약 30년간 이어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유임선 회장, 강경순 부회장이 참석해 새내기 법무보호위원들을 격려했다.

송병배기자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 치유 합동 토론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동부경찰서 공동 주관

대전동부경찰서(서장 강동하)는 25일 대전시의회에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과 치유에 대한 민 · 관 · 경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동부경찰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방안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나아가 관련 조례 제 ·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동부경찰서, 시의회, 시교육청, 대전충남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대전관내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및 학부모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동부경찰서 김미순 경감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 도박중독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예방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좌장을 맡은 김민숙 시의원은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시 조례를 구체화하고 청소년 도박예방 및 치유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대전도시공사,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20억 수익' 창출

생산된 바이오가스 판매로 환경보전과 수익창출… 일석이조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된 바이오가스 판매로 연간 20억 원의 수익을 거둬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5년 환경보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공사는 음식물쓰레기의 에너지화를 위해 2017년부터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스를 인근 산업단지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하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과 양질의 가스연료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 정구황 소장은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일 400톤으로, 처리 시 발생되는 가스의 판매 매출액이 20억 원이 넘는다"며 "다만 폐기물 내 플라스틱 용기, 비닐 등 이물질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정제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김태선기자

서천소방서, MBN 불타는 트롯맨 가수 박민수 방문 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는 25일 MBN 불타는 트롯맨 TOP5로 많은 인기를 누리는 가수 박민수가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노조, 악성 민원 근절대책 즉각 마련 촉구

대전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대교노)은 개인정보 유출 · 유포로 악의적 민원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조직도에서 실명 비공개 전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제2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교육감에게 조직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악성 민원 근절대책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자살사건 이후 광역시 및 시군구 등에서는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신속하게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직위와 담당업무, 행정전화번호만 공개하며 사무실 입구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서도 사진을 빼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원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 민원실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는 29일 이후 악성 민원 근절 ·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안종현 위원장은 "현수막 게첩, 1인 시위, 민원봉사실 배너 설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교육감은 하루 빨리 악성 민원 근절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 - 575호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에 처리 공고)에 따라 무연고자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주 소	비 고
노○희	590520	여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계백한전길 363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560번길 18-11(상소동)	

2. 사망 관련 내용
가. 사망일시: 2024. 04. 04. 15:10
나. 사망장소: 대전 동구 산내로 560번길 18-11 (보광노인전문병원)
다. 사망원인: 병사(다발성 장기부전)
라. 기타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례처리 안내를 위해 연고자 확인함.
사망자는 제적등본 존재하지 않으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초본 내역 확인결과 부모, 자녀, 형제 · 자매 없음.
- 장례처리 일체를 남대전장례식장에 위임함.

3. 처리내용
가. 처리방법: 화장 후 봉안
나. 화장일자 및 화장장소: 2024. 04. 06.(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정수원
다. 봉안장소: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전추모공원 / 봉안번호 1관1층-코스모스7343
- 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뜻길 160(괴곡동)(☎042-602-2500)
라. 봉안기간: 2024. 04. 06.~ 2029. 04. 05.(5년)

4.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생활보장과(☎ 042-251-4492)

충무공 이순신 탄신 제479주년 기념행사 개최

충무공의 국난극복 정신 기리는 다례 … 다양한 부대행사도 풍성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이신복)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4월 28일 오전 11시 현충사(충남 아산시)에서 이충무공의 국난극복 업적과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9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주 행사인 다례(茶禮)는 초헌관(初獻官, 현충사관리소장)의 분향(焚香, 향을 피움) · 헌작(獻爵, 술잔을 올림)과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으로 구성된 초헌례(初獻禮), 아헌관(亞獻官, 충무공 후손대표)이 헌작하는 아헌례(亞獻禮), 종헌관(終獻官, 시민 제관)이 헌작하는 종헌례(終獻禮)로 진행된다. 이어서, 대통령 명의의 헌화(獻花)와 분향,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의 헌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참여하거나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현충사관리소는 기념행사 하루 전인 27일과 행사 당일인 28일 양일간 현충사 내 고택 · 사당 · 교육관 등 6군데를 돌며 도장을 받으면 기념품(종이접기 ·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체험꾸러미)을 받을 수 있는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행사를 운영하며, 같은 기간 아산시는 이충무공묘소를 경유하는 '백의종군길' 걷기대회와 마라톤 행사를 준비했다.

탄신제 주간(4.24~4.28)에 '성웅 이순신 축제'를 주관하는 아산시는 현충사 고택에서 4월 27일 오전 10시 '이순신 창작시 및 시낭송 대회'를, 현충사 충무문에서 사생대회를 각각 개최하고, 28일 오후 1시 역시 충무문 앞에서 난중일기 백일장을 개최한다.

28일에 현충사 은행나무 활터에서는 대한궁도협회가 주최하는 '제63회 대통령기 전국 시 · 도대항 궁도대회'가 개최된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4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현충사를 찾는 관람객들이 탄신 다례 행사와 충무공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씻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유산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예산교육지원청, 2024 기초학력 내실 지원 위한

'온(ON)시스템 활용 배움 자리' 실시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은 지난 23일 본청 회의 실에서 관내 초 · 중등 교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온(ON)시스템 활용 배움 자리를 실시했다.

이번 배움 자리는 학생의 기초 · 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배움과 성장 지원을 위해 충남 교육청에서 개발한 디지털 기반 맞춤 교육 온(ON)시스템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 · 중등 교원을 분리하여 진행된 이번 배움 자리에서는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는 한글 미해득 진단 · 보정 시스템인 '온한글', 학습부진의 원인과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이력 관리하는 시스템인 '온채움', 교과서 기반의 사고도구어를 익히는 자기 주도 학습 시스템인 '온생각'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는 '온채움'과 '온생각'에 대한 안내와 실습으로 진행됐다.

김종하 교육장은 "기초 학력은 학생의 인권과 같다. 이번 배움 자리를 통해 온(ON)시스템이 각 교실에서 적극 활용되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정확하게 진단 되어 유형별로 지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금산고 '같이, 봄' 프로젝트 운영 금산고등학교(교장 권재문)는 4월 15~19일까지 한 주간 독서 교육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융합한 '같이, 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같이, 봄' 프로그램은 독서 생활화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계획됐다.

"절대 NO,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나를 지켜요"

당진 서정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

당진 서정초등학교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 특성을 고려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학급별로 실시했다.

작년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부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불법 마약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약물의 의미,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의 위험성,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및 예방법 등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전황진 교장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봄봄봄,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어린이날

세종시교육청, 5월 5일 102주년 어린이날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02주년을 맞이한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다채로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사랑해 봄, 소중해 봄, 행복해 봄'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세종의 모든 어린이가 교육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어린이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날 세종수목원 야외무대에서는 102주년 어린이날 기념식과 세종교육공동체 어린이선언문 낭독이 진행된다.

또한, 세종시 어린이 중심의 세종유스오케스트라 공연, '언니 · 오빠들이 축하하는 어린이날'을 주제로 한 관내 고등학생 밴드와 댄스 동아리 공연 등 열정적인 축하 무대가 종일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 축제 마당에서는 30개가 넘는 체험관과 놀이마당, 미디어 버스, 생태체험 버스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세종마을교육협의회, 사회적 경제공동체,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지역의 많은 관계기관이 뜻을 함께하여 참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작 · 배포한 어린이날 계기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는데, 어린이날의 의미와 취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어린이가 다시 쓰는 '어린이 헌장' 제작과 같은 학생 주도 행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태선기자

'2024 유 · 초 이음 유아교육한마당'

부여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은 지난 19일 부여 관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공연장에서 '2024 유초 이음 유아교육한마당'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이음 교육의 일환으로 입학 전 유아의 행복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부여교육지원청과 국립부여박물관이 공동 주관하여 신나는 레크레이션 활동, 고품격 어린이 뮤지컬 관람, 어린이박물관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뮤지컬은 유아들과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원격조종이 되는 공연용 LED 카드 목걸이를 사용하여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며 소외되는 어린이 없이 모두 다 참여하듯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부여=김성구기자

"청양교육의 든든한 동반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약!"

24년도 청양학부모회협의회 정기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은 지난 24일, 관내 초 · 중 · 고 학부모회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학부모회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2024학년도 청양학부모회협의회 임원 선출과 회칙 개정 ▲2024년 학부모 지원 사업 안내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진순희 지부장 초청 '학부모가 교육을 바꾼다' 특강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청양군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은 ▲회장 이미란(정산초), ▲초등 부회장 이정민(수정초) ▲중등 부회장 정산고 진항청 학부모 회장이 선출됐으며, 총무에는 청양중 김현우 학부모 회장이 위촉됐다.

2024 청양군학부모회협의회 이미란 회장은 "청양 학부모회협의회가 각 학교 학부모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양과 충남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진기성 교육장은 "청양군 학부모회협의회가 청양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청양 교육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양=정상범기자

'2024년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대전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정책 타당성 등 자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4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정책 타당성 등을 자문받기 위하여 '2024년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전문가,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대전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창의인재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과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 추진 방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2016년에 시작한 '창의인재학교' 운영사례를 일반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2017년에 시작하여 학생들의 기초과학역량 신장에 힘써왔던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와 노벨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먼저, 창의인재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대전형 혁신학교 운영 우수사례 홍보 강화, 창의인재학교 선정 기준, 창의인재학교 지속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공동체 동반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연계 과학프로그램 강화,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확대 운영, 대전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학생체험프로그램 지원, 노벨과학체험전 운영 지원 확대 등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 설계와 실행을 위한 방안을 자문하였다.

김정환기자

"경북 웰니스 관광 명소는 김천치유의 숲"

국립김천치유의숲, 웰니스관광지 재지정

수도산 자작나무숲으로 유명한 경북 김천치유의숲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김천치유의숲(센터장 박한진)이 지난 2020년부터 3회 연속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천치유의숲은 소백산맥의 명산으로 꼽히는 수도산 8부 능선에 자리 잡아 깊은 계곡과 아름다운 자작나무 · 잣나무 숲에서 해먹 명상과 소도구 운동, 맨발 걷기 등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이루는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해 선정된다.

송병배기자

한국타이어 · 스타트아트코리아(START ART KOREA)와 함께 후원

기안84 개인전 '기안도' 부산 개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가 모터컬처(Motor Culture) 브랜드 '드라이브(DRIVE)'의 아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26일부터 5월24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기안84의 개인전 '奇案島(기안도; 기묘한 섬)'를 스타트아트코리아(START ART KOREA)와 함께 후원하고 협업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 기장의 '아난티 컬처클럽'에서 운영되며 27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아난티 컬처클럽'은 부산 기장의 '빌라쥬드 아난티'에 위치한 전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문화 예술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프리미엄 공간인 아난티 컬처클럽에서 전시회와 함께 다채로운 식음료를 함께 즐기는 '아트 앤 다이닝' 패키지로 기획돼 앞서 지난달 힙하고 젊은 무드를 반영한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기안도' 전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전시회에서 기안84와 협업해 새롭게 탄생한 '구름2'라는 제목의 아크릴 작품을 선보인다. '구름2'는 한국타이어가 최근 새롭게 리뉴얼한 모터 컬처 브랜드 '드라이브'의 컨셉인 '이동'에 맞춰 한국타이어와 함께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여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했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와 기안84가 함께 작업한 래핑 차량 '부가티 시론 아트카'와 오브제 '한타스'도 전시한다. 래핑 차량의 디자인은 한국타이어 브랜드 슬로건인 '드라이빙 이모션(Driving Emotion)'을 주제로 10년간 기안84가 연재한 웹툰 속 주인공 '우기명'의 표정을 활용해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 해당 작품은 지난 전시회에서 이색적이고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로 관람객으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다. 송병배기자

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연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 24일, 아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4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아산시 관내 유 · 초 · 중 · 고 특수교육지원인력 70명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공연과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됐다.

본 연수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한 공연과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심폐소생술 내용의 연수를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의 특별한 공연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김지희 씨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열정적인 연주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어서 진행한 심폐소생술 연수에서는 천안의료원 의료진들의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전 훈련도 함께 실시되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초등돌봄전담사 배움자리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은 25일, 관내 23개 초등학교 초등돌봄전담사 36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초등돌봄전담사 배움자리를 실시했다.

양자산업 육성 의지 대내외 알렸다

道, 산학연 전문가와 양자과학기술 육성포럼 열고 생태계 조성 방안 등 논의

충남도가 첨단산업의 핵심분야이자, 경제 · 국방 · 안보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산업 육성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도는 25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미래양자융합포럼과 충남연구원 주최로 '충남 양자과학기술 육성 포럼'을 열고 ▲도내 주력 제조산업과 양자기술 접목 ▲양자 연구인력 육성 ▲국방 분야 양자 관련 기술 활용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이종식 미래양자융합포럼의장을 비롯해 고등과학원(KIAS),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등 국책연구기관과 공주대, 경희대, 육군사관학교 교수 등 양자과학기술 산 · 학 · 연 전문가, 청중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표,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발표에서는 백승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국가기술전략센터장이 국내 양자과학기술 정책과 전략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백 센터장은 "국가 차원에서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양자컴퓨팅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공정, 자동차 자율주행, 의료, 안전, 국가 안보에 적용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욱재 공주대 교수가 충남 중심의 양자혁신생태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충남 특성에 맞는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자기술과 산 · 학 · 연이 융합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승호 경희대 교수는 양자연구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미래먹거리 인공지능(AI) · 양자컴퓨터 기술 격차보다 심각한 건 인재부족"이라며 "양자대학원 확충, 양자관련학과 신 · 증설, 공공부분 양자연구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양자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인력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정근홍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국방 분야 양자과학기술 접목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세계 각국은 양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 중"이라며 "미래 국방력 우위를 위해 국방 양자 기술의 기반 확보 및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도내 주력 제조산업과 양자과학기술 접목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자과학기술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필요한 정책 지원 등 충남 양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도는 양자기술 접목 실증과제 발굴, 양자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충남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하반기 제정 등 충남 양자과학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 부지사는 "양자통신, 컴퓨팅, 센서 분야의 양자과학기술은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로 충남의 모빌리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과 결합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창출 가능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중지를 모아 충남이 양자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당진시-더본 손잡고 콩 활용 메뉴 개발

순두부 아이스크림 등 메뉴 2종 기술 이전 교육

당진시는 지난 24일,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더본외식산업개발원(대표 백종원)과 손잡고 개발한 메뉴 2종(순두부 아이스크림, 순두부크림 녹차라떼)의 기술 이전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두부와 순두부를 활용한 이번 메뉴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당진시민뿐 아니라 당진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대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카페 4개소 (▲순성 미미커피방앗간 ▲합덕 풍년커피 ▲당진 베리나이스 ▲당진시니어클럽)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끝나면 아이스크림 포장재 개발, 판매 전략 수립 등 준비 과정을 끝내고, 콩 활용메뉴를 바로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인 콩 활용 상품화 제품을 개발해 당진 콩 소비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2년간 당진 남부권을 중심(우강 · 합덕평야)으로 118헥타르(ha) 면적에 콩을 재배해 두렁콩 직거래 장터 운영, 볶은 두렁콩 서리태 상품화, 두렁콩 찰떡 개발 등 지역 업체와 손잡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산림복지진흥원 어린이날 '숲 놀이 대축제' 사전 접수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5월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어린이날 숲놀이 대축제' 참가를 위한 사전 접수를 5월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숲 체험을 통해 아이의 성장지원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번 축제는 5월4일 국립춘천숲체원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8곳(국립춘천숲체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대전숲체원, 국립칠곡숲체원, 국립청도숲체원, 국립장성숲체원, 국립나주숲체원, 국립김천치유의숲)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국립춘천숲체원은 5월 3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4LwLA9snprUKJKuy5)을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 밖의 7개 소속기관은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어린이들이 소중한 숲의 가치를 깨닫고 숲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공주시 충남 대표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27일 개장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지역에서 생산한 제철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충청남도 대표 직거래장터인 '바로마켓 백제금강점'이 오는 27일 금강신관공원에서 개장한다.

올해 3년째 운영되는 '바로마켓'은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목적으로 공주시와 NH농협 공주시지부가 연계한 '1도 1대표 직거래장터'이다.

장터는 오는 27일 개장해 12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된다.

바로마켓 백제금강점에는 충남도내 7개 농가와 공주시 관내 45개 농가가 참여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120여종의 다양한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27일 개장에는 계룡딸기 300상자(1kg)와 우성오이 1800개를 시중보다 20~30% 특별할인 판매하고,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달걀 10구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는 계절별 행사와 김장하기, 알밤줍기 체험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총 59차례 진행된 지난해 바로마켓에는 9만 6천여명(전년대비 18% 증가)이 찾아 1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 역시 1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단순한 직거래 장터를 넘어 공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추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인 공주시에서 문화관광을 즐기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신농법' 실증

홍성군, 드론을 활용한 차광제 도포…차광효과 극대화 · 노동력 절감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24일 홍북읍에 위치한 딸기 시설하우스에서 드론을 활용한 차광제 도포작업을 실시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신농법 실증을 추진했다.

차광제는 고온에 위협받는 농작물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차열페인트로, 비닐하우스나 축사지붕에 뿌리면 내부온도를 3~4도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지속해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절감과 저렴한 시공비로 최근 농가의 폭염대책 방안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4월 이후에는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시설 내 작물 수량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외부 차광막 설치나 차광제 도포가 필수적이다.

기존에는 안전문제 등으로 차광제 도포작업이 어려웠으나, 지난 4월 4일 출범한 홍성군병해충민간방제단연합회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하여 차광제 도포작업을 실시했다. 드론 분사는 비산 손실을 최소화하여 차광효과를 극대화하고, 희석배수 조절로 차광률을 조정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

한편, 홍성군병해충민간방제단연합회는 병해충 방제와 비료 살포뿐만 아니라 차광제 도포, 과수인공수분 등 농업 드론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사업 이행 실태점검 추진

예산군, 사업 이행 점검으로 철저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

예산군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2024년도 사업 이행 실태 점검을 오는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 계획 대비 사업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미달 기업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 계획 대비 상시 고용 인원 채용 ▲기업의 재무 상황 ▲중요 재산의 양도, 대여 등에 관한 사항 ▲기업 소유 및 주 업종의 변경 사항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 등 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를 산업 통상 자원부와 충남도에 통보하는 한편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을 촉구하거나 사업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점검 결과 발굴된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인 만큼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사업 이행 점검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에 바쁘 시더라도 이번 점검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기업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유치한 투자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투자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예산 =박제화기자

K-푸드 대표주자 청양 농특산물 홍콩 소비자를 사로잡다

청양군-의회-농협4곳-한국 한인홍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4일, 한국 한인홍 홍콩유한회사 본사(홍콩 춘완 웨스트)에서 이종필 청양부군수,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장, 농협(청양군지부, 청양'정산'화성) 관계자와 한국 한인홍 간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각 협약기관 대표 인사말씀, 청양군 농특산물 홍콩 수출 경과 보고, MOU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은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유통 환경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의 어려움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양군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 및 유지 △맞춤형 수출 상품개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간 도움이 되는 기술 및 정보의 적극적인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양군 농특산물의 공세적인 수출과 품목 다변화를 도모해 연간 약 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홍콩 내 청양군 농특산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판매 확대로 이어지고, 홍콩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신임 간부들과 공사의 사업과 리더십 논의

조폐공사, CEO-직원 간 다섯 번째 만남… 소통 경영의 장으로 자리매김

한국조폐공사(www.komsco.com) 성창훈 사장이 제조기업에서 ICT기업, 문화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평적개방적 조직문화로 변화를 강조하며 직원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2일 최근 관리자로 승진한 '신임부장'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 참석자들과 사업,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번 미팅은 다섯 번째로, 앞서 2030 · 3040 · 4050세대 및 ICT경력직 직원들과 차례로 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

성창훈 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직원들과 의견을 공유해 공사가 ICT기업, 문화기업에 걸맞은 수평적개방적 기업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성 사장의 소통 행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열린 경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 매주 임원회의 시 CEO 주요 발언을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공유하는 'CEO 메시지' ▲ CEO가 임직원에게 보내는 편지 'CEO 레터' ▲ 홍보 부서와의 대담 '사내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안에 대한 CEO의 생각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한편, 조폐공사는 CEO와 직원 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은 '타운 홀 미팅'을 신입직원 및 사내 봉사단과의 미팅 등 다양한 직원들과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동정

이순신 축제

박경귀 아산시장=26일 '(축제3일차)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 참석.

읍·면·동 순방

오성환 당진시장=26일 오전 10시, 신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선 8기 3년 차 읍·면·동 순방을 주재, 오후 2시, 송산사회복지관에서 '민선 8기 3년 차 읍·면·동 순방을 주재.

온기나눔 행복봉사

가세로 태안군수=26일 오후 12시 10분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봉사' 행사에 참석

달빛마켓 행사

김돈곤 청양군수=26일 오후 6시 청양시장에서 열리는 달빛마켓 행사에 참석.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맞손

태안군-신용보증기금,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달부터 지원 돌입

태안군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로 거래처 간 외상거래 부작용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태안군에 위치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다.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 음료 제조, 담배 제조 업종은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하며, 할인된 보험료에서 충남도가 보험료의 50%(1400만 원 한도), 태안군이 보험료의 20%(300만 원 한도)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신한은행도 보험료의 20%(45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태안군 지원 예산은 5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에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대전신용보험센터(042-539-8411, 8421)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시립도서관 봄을 만끽하는 시민들로 와글와글

오감만족 말하는 공연 '봄, 노래해 봄' 열려

당진시립중앙도서관 4층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에서 지난 24일 시민참여 오감만족 말하는 공연 '봄, 노래해봄'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예그리나 통기타 동호회(김은경, 김태갑, 노미연, 이기수, 정진아, 지형철, 홍양표)와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김연호, 박은주, 유정순)가 함께 기획해 공연했다.

통기타와 젬베, 아코디언 등의 악기로 옛사랑(이문세),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김광석), 아메리카노(10cm)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곡들을 연주했다.

또한 정호승 시인의 봄 길, 봄이 오는 길(박인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해인) 등의 주옥같은 여러 시를 낭송해 관람객들은 봄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에서는 연주,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개인 혹은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은 항상 문이 열려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무대로 재능을 뽐내고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재)아산문화재단 방문 · 운영 현황 등 추진사업 전반 점검

아산시는 2023 회계연도 재정운영의 효율성 검토 및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23일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검사위원들은 시 출연기관인 (재)아산문화재단을 방문해 ▲재단 운영 현황 ▲출연금 사용내역 ▲추진사업 전반 ▲충효애 사업 내용 및 집행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명노봉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검사해 예산 집행 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서(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첨부서류 전반을 면밀하게 검사한 뒤, 26일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상경)은 치매환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통 프로그램 '헤아림 가족교실'을 운영한다.

'헤아림 가족교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1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각각 5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2024년 상반기 가족교실은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14시~16시 치매안심센터 정산분소(정산보건지소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치매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한 교육, 역할극을 통한 치매환자 이해와 돌봄에 관한 소통교육, 집단상담 및 미술치료 등이다.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상경)은 "치매가족교실을 통해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지혜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 밖에도 치매가족 숲치유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치매환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치매안심팀(940-4555~4561) 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는 지난 23~24일,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보령 및 태안 일원에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조직 문화에 대응하며 직원의 역량을 향상해 농업인 서비스 품질 향상하고 조직 소통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직무역량 마인드 향상 및 조직내 나의 역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팀빌딩 교육 ▲스마트팜 현장 벤치마킹이 진행되었다.

남윤우 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속에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힘이 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직원 역량강화 및 소속감 향상을 위해 매월 직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초마다 강의기범 연찬을 실시하고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발표력 향상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태안군 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당부

야외활동 늘어나는 봄철 많이발생 · 치명률 높아 격별한주의 요구

태안군이 참진드기의 활동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4~15일 내 고열·오심·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무성한 곳에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 등 숙주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흡혈하는 특징이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풀밭에 오래 머물지 않기 ▲안전한 옷(밝은색의 긴 옷, 목이 긴 양말, 모자·목수건·장갑 등) 착용을 통한 피부 노출 최소화 ▲진드기 기피제 사용(약국에서 판매) ▲농작업 및 야외활동 중 휴식 시 방석이나 돗자리 사용 ▲야외활동 후 전신 샤워 및 물린 흔적 찾기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민 여러분께서는 예방수칙을 꼭 준수하시고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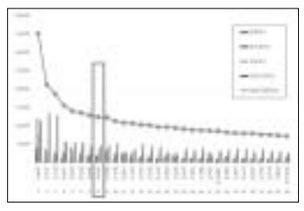
태안=김정한기자

(042)538-3030

우/리/동/네

4월 도시브랜드 평판 전국 8위

아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1위 기록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4월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평판 순위에서 전국 8위에 랭크됐다. 2024년 1월 자체 최고 기록인 7위에 오른 뒤 4개월 연속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 달간 대한민국 시(市) 브랜드 빅데이터 6,105만 677개를 대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 참여와 소통량, 소셜 대화량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4월 조사에서 아산시는 ▲참여지수 193,112 ▲미디어지수 206,625 ▲소통지수 386,078 ▲커뮤니티지수 455,808로 종합 브랜드 평판지수 1,241,623으로 전체 8위에 랭크됐다.

1~3위는 광역시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가 차지했다. 아산시의 8위는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단위 시(市)로는 전국 1위 성적이다.

2022년 7월만 해도 40위권에 머물던 아산시는 2023년 4월 8위로 급부상하며 처음 10위권에 진입했고, 지난 1월에는 자체 최고 기록인 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산시는 '4개월 연속' 10위권, 특별시·광역시·특례시를 제외한 기초단위 시 중 전국 1위라는 기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아산시 대표 축제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도시브랜드 순위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귀 시장은 "도시브랜드 평판지수는 어느 한 분야의 일시적 성과나 단기간의 짧은 노력으로 이뤄지는 결과가 아니다"라며 "달라진 도시 위상에 어울리는 고품격 도시 인프라 조성과 문화예술 정책,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 여건 마련으로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아트밸리 아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당진시, 단태아 60만 원 · 다태아 100만 원

당진시는 2024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지급하며, 현재까지 단태아 192명, 다태아 3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출생신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 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당진시는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임신 체험복 및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실시

청양군, 정확한 재고량 파악으로 부정유출 등 사고 예방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청양사무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꾸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3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재고량 파악으로 양곡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와 부정유출 등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군에는 총 31개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가 있으며, 3월말 기준으로 7,262.1톤의 정부관리양곡을 보관중이다.

합동조사반은 정부관리양곡의 실재고량뿐만 아니라, 양곡의 품위, 적재기준 준수여부, 보관창고시설의 안전 등 전반적인 양곡관리 실태도 함께 조사'점검했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올해는 정부관리양곡을 식량원조용 쌀, 사료용 현미 등으로 가공하기 위한 양곡의 반입'반출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재고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새희망 새출발' 임시특화시장 개장

서천군, 화재 피해 극복과 일상회복의 첫걸음

서천군과 충남도가 25일 서천임시특화시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힘쎈 도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천군과 충남도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장동혁 국회의원과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자,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 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 등 성금모금 기관 관계자, ㈜현대건설, ㈜한아테크, ㈜플랜엠 대표, 임시특화시장 시공 관계사 등 초청인사 100여명과 임시특화시장 상인, 군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개장식 행사는 식전 공연, 감사패 수여, 공식 영상 상영, 개장기념 의식, 축하공연, 시장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픔을 딛고 힘쎄게 도약하는 서천특화시장'을 주제로 제작된 개장식 공식 영상은 지난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 이후 화재건물 철거과정, 임시특화시장 공사 진행 과정은 물론, 상인들과 주민들의 화재 발생 당시 느꼈던 심경과 향후 서천특화시장에 대한 희망 등을 담아내 공감을 자아냈다.

이외에도, 축하공연에는 서천의 아들 박민수, 불타는 트롯맨 민수현, 강유진, 구재영, 서천 올라운더 밴드 등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하며 다시 문을 연 시장의 번창을 기원했다.

김기웅 군수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임시특화시장이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 극복과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제 새로운 서천특화시장의 건립을 위한 서천군의 앞날에 군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5일 개장된 임시특화시장은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4361㎡에 막구조 2700㎡, 모듈러(2층 구조) 1589㎡로 조성됐다.

▲2층 구조 모듈러에는 일반동 점포 74개 ▲막구조는 농수산물과 식당동 점포 149개 ▲컨테이너는 일반동 점포 3개 총 226개 점포가 임시특화시장에 입점해 손님맞이 준비를 마치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2024년 백마강달밤야시장 개장

매주 금 · 토요일 저녁 부여시장 광장에서 20회 운영

'2024 백마강달밤야시장'이 오는 26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5월 4일 정식 개장한다.

충청권 최대 야시장인 백마강달밤야시장(이하 야시장)은 2016년 첫 개장하여, 2020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열려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야시장은 새로운 관광의 명소로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여 부여의 야간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야시장은 오는 4월 26일(금), 27일(토), 5월 3일(금),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5월 4일(토) 정식 개장하여 7월 13일(토)까지 진행된다. 시간은 18시에서 23시까지 매주 금 · 토요일(우천, 5일장 제외) 부여시장광장(부여읍 성왕로173번길 12에서 총 20회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야시장 방문객들을 즐겁게 할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참여 매대 30대)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수족관 꾸미기, 달고나 만들기, 블록 만들기 체험 등 야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존과 포토존 등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백마강 달밤 야시장은 4월 15일부터 IPTV 채널 및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부여군 인근 지역과 충청권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야시장을 홍보하는 한편 MZ세대의 취향을 고려해 각종 SNS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관계자는 "타지역 축제에서 가격이나 위생 등의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단에서는 상인들의 위생 교육과 안전교육을 엄격하게 진행하였다."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즐길거리를 다채롭게 준비했으니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추억만 가져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마강달밤야시장에 관한 문의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지원센터(041-837-1774)로 문의하면 된다.

KADEX 성공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道-계룡시-육군협회, '방산전시회' 정착 · 안정 · 지속적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육군협회(협회장 권오성)와 'KADEX 2024'(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이하 '방산전시회')) 개최에 대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응우 계룡시장, 권오성 육군협회장을 비롯해 각 기관 주요 관계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은 방산전시회의 계룡대 정착 및 성공적인 개최 등 안정적 · 지속적 개최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내용으로는 ▲충청남도 · 계룡시는 '방산전시회'의 홍보 및 기반시설 등 필요한 지원 적극 협력 ▲육군협회는 '방산전시회'의 계룡대 지속 개최 및 충남도민 관람 혜택 부여 ▲'방산전시회' 성공개최 위해 협약기관이 인정하는 필요사항 등에 대해 상호협의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ADEX 2024'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로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이 후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여개국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행사로써 K-방산을 홍보하는 종합 박람회장으로 불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부품기업의 상담회 ▲방위산업 진출희망기업과 담당 기관의 1:1 컨설팅 ▲스타트업 기술 시연 및 투자설명회 ▲해외 공식대표단과 참가기업 공식 구매 상담회 ▲참가기업의 신기술과 제품을 국내외 군 관계자에게 시연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국내 방산기업의 판로 확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계룡시를 방문하는 관람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응우 시장은 "아시아 최대규모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계룡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4만 7천여 시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계룡軍문화축제와 세계軍문화엑스포를 성공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KADEX 성공개최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방수도 계룡시와 힘쎈 충남의 브랜드가 한차원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軍문화축제', '지상군페스티벌', 'KADEX 2024'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동시개최될 예정이다.

계룡=김성구기자

부여군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마음껏 즐겨요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2024 사비골 어린이날 큰 잔치

부여군은 오는 5월 4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2024 사비골 어린이날 큰 잔치를 개최한다.

사비골 어린이날 큰 잔치는 부여군이 주최하고 사비아이들(구 사비골어린이날큰잔치추진위원회)이 주관하는 행사로, 38개 기관 · 단체가 참여하여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꿈과 끼 페스티벌 ▲주먹밥 · 모종 나눔 ▲팽이 만들기 ▲톡톡블럭 ▲에코백 꾸미기 ▲예쁜 팔찌 만들기 ▲모루인형 만들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가야금 · 거문고와 같은 국악기 체험 ▲장애체험 ▲분리배출 비석치기 ▲마음 충전소 ▲전통단청문양 팽이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부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부스, 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여교육 부스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신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비골 어린이날 큰 잔치는 매년 구드래조각공원에서 개최됐으나 올해 행사는 규암면에 위치한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으로 잘못 찾아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봄날의 축복들이' 진행

제44회 장애인 주간을 맞아 충남도 태안군에서 진행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향이)이 지난 24일 장애인 주간을 맞아 충남도 태안군 일원에서 '봄날의 축복들이'를 진행했다.

복지관 이용인 및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140명이 참여한 이번 나들이에는 국립생태원의 후원과 자원봉사, ㈜삼성공조시스템, 한울이엔텍㈜, SPC삼립, 맘스터치 서천점, 바른생산자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의 후원이 더해졌다.

참여자들은 안면도자연휴양림을 거닐며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코리아 플라워파크에 방문해 다채로운 튤립과 함께 봄을 담은 사진을 남기는 등 큰 활력과 행복한 추억을 간직했다.

나들이에 참여한 이 모 씨는 "이번에 다 같이 나들이를 가 예쁜 꽃을 봐서 기분이 좋았다"며, "새로운 리프트 버스 덕분에 휠체어를 타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전했다.

임향이 관장은 "지역사회의 지원 덕분에 이용인 및 보호자들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이용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논산시 농민 살맛나네" 줄줄이 따라오는 5500억 기업투자유치의 체감

농업 · 산업 선순환 경제 체제 기반 구축 마련 큰 성과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관내 기업으로 하여금 시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협약을 이끌어냈다. 시는 민선 8기에 들어 논산이 가진 미래가치와 저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전을 펼친 결과 5,500억 원 투자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본 협약은 기업 유치의 실질적인 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CJ제일제당, 빙그레, HY한국야쿠르트 등 28개 기업이 논산시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게 된다. 유통업계 공룡들의 전국적인 저가 공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관내 기업들이 힘을 모은 데 의미가 깊다.

지난 24일 '논산시-농업인단체(5)-논산시기업인협의회(28)-위탁급식기업(5)-논산시농업협동조합 운영협의회(3)', 총 48개의 협약주체들이 서명한『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농축산물 소비촉진 생생협약』에는 기업들이 식품제조와 구내식당 운영에 사용되는 쌀, 야채, 축산물, 공산품을 논산시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식품기업에서 소비될 논산 농식품은 연간 쌀 1,179톤, 계란 1,000만 알, 양파 170톤, 당근 221톤, 마늘 37톤 등에 달한다. 기업 구내식당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품목을 사용해 사용량을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기업들은 보통 대규모로 식자재를 구입해 납품하는 위탁업체를 이용하기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면 단가가 상승하는 부담이 있지만, '28개 기업'과 '논산시 기업인 협의회', '위탁급식기업'은 논산의 우수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의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간다는 차원에서 협약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약에 동참한 논산시 기업인협의회는 매년 명절 선물로 논산 농산물을 선택할 정도로 논산시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기도 했는데, 작년 토마토 수요가 급감하자 지역 농가로부터 토마토 2천 2백 박스를 구매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농업인단체', '농업협동조합'도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기업에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약속을 했고, 논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기업 생산품 역시 지역에서 우선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협약으로 행정 · 기업 · 교육 · 시민+군(관계인구)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백성현 시장의 '4+1 행정 철학'이 구체화 됐다. 백 시장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각 요소를 묶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창해왔다. 이번 협약은 도농복합도시인 논산에 안성맞춤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논산의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뢰가는 농산물, 그 둘을 한데 묶어내는 노력을 했다"며, "4+1행정은 앞으로도 각 요소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내어 논산 발전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적극적으로 농산물 수출활로를 개척해 동남아시장을 매료시킴과 동시에 아시아한상대회,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등을 기획해 1,040억 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식음서비스 기업인 삼성웰스토리, 수원원협과 함께 상생협력을 약속함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대규모 판로를 확보, 농가소득 증대의 길을 연 바 있다.

동정

간담회

박정현 부여군수= 26일 오전 11시 여성문화회관 3층 행정동우회 정기총회에 참석, 오후 4시 30분 대전 신세계 백화점에서 백제권 관광벨트 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해양수산부 방문

김기웅 서천군수= 26일 오전 10시 종천면 치유의숲에서 열리는 1530 만보 걷기 발대식 및 한마음 치매극복 건강 걷기행사에 참석, 오후 3시 2025년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를 방문.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시민공청회 성료

계룡시, 5월 중 최종 보고회 예정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24일 계룡병영체험관에서 개최한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관련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이날 공청회는 시민, 기관단체,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국립군사박물관을 관내 신도안면 일원에 부지면적 7000㎡, 연면적 1만 9600㎡, 1044여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국내외 박물관 운영실태 등에 대한 검토 및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국립군사박물관이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시민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 가능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야 한다"며 체험형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응우 시장은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립군사박물관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 건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5월 중 최종 보고회를 통해 용역을 마무리한 후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국가(국방부) 사업으로 채택되어 건립을 현실화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서천군 판교행복경로당! 어울림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서천군이 지난 24일 '생기발랄 어울림센터'에서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행복경로당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기발랄 어울림센터는 지난 2월 준공됐으며,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노인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판교행복경로당을 어울림센터로 이전했다.

백운연 판교면 부면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 정

전직 기관'단체장 초청 간담회

최원철 공주시장= 26일 오전 11시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리는 전직 기관' 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김동일 보령시장 = 26일 오전 11시 웅천복지관에서 개최되는 소황사구 생태 · 경관 보전관리 협약식에 참석하고,오후 5시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 참석.

2024 명예 읍면동장 간담회

이완섭 서산시장= 26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명예 읍면동장 간담회 참석,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근로자의 날 유공 표창식 참석.

가족화합대회

박범인 금산군수= 26일 오전 10시 30분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제37회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가족화합대회 참석.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

차량 450여 대 수용 복층주차장 건립

▲ 이완섭 서산시장이 24일 중앙호수공원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충남 서산시가 시민에게 청정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예천지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을 추진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4일 중앙호수공원에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사업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 예천동 1255-1, 3번지 일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18만 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독 및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도심 주차난으로 보행자,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복층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호수공원의 도심의 허파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 휴식 ·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초록광장 조성도 함께 추진해, 기존 부지 활용도를 3배 이상 높였다. "고 했다.

사업은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예천동 1255-1, 3번지에 약 270억 원을 투입해 차량 4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특히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중앙호수공원의 도심 속 허파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복합 휴식 ·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호수공원과 높이를 맞춘 옥상에 초록광장을 조성한다.

초록광장에는 모든 시민이 청정한 녹색환경에서 여가를 만끽할 수 있는 잔디광장과 함께 산책로, 족욕 가능한 인공개울 등이 갖춰진다.

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착공하고 2026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서산 =김정한기자

금산군 미래전략 발굴 군민 · 전문가 · 공무원 머리 맞댄다

10개 분야 총 800여 명 참여 미래정책대학 운영 추진

금산군은 군정 비전인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비전 실현과 실행 가능성을 갖춘 전략과제 도출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군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미래정책대학 운영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 군정과제 발굴과 현안 정책 공유학습발전을 통해 정책 의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모 및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 운영에 관한 사안은 세계화(인삼), 인구, 관광, 경제, 정주, 행복, 교육, 농업, 문화체육, 신뢰소통 등 10대 군정과제 전문가로 구성되는 미래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 미래정책 분야별 교육에 참여하고 정책과제 발굴을 선도하는 지역리더 모임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도 조직하며 충남연구원은 교육과정에서 도출된 정책의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교육 대상은 10대 군정과제 분야별로 군민, 사회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80여 명씩 총 800여 명이며 명사 초청 특강, 정책강의, 선진지 견학,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4월 말까지 미래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중으로 교육생을 모집한 후 명사 초청 특강을 시작으로 미래정책대학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한 미래 발전과 세계화 군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정책대학 운영에 나선다"며 "공감대를 형성해 실행력 있는 정책발굴로 군정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보령시 2024옥마산 봄꽃축제&황톳길 걷기행사 연다

27일 개최, 풍물놀이 · 황톳길 걷기 등 다채로운 행사

보령시민이 사랑하고, 봄 내음과 꽃향기가 가득한 옥마산에서 따스한 봄꽃축제의 향연이 펼쳐진다.

보령시는 오는 27일 오후 옥마산봄꽃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택) 주최로 옥마산 주차장 및 옥마정 일원에서 '2024 옥마산 봄꽃축제&황톳길 걷기행사' 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옥마산 주차장에서부터 옥마정까지 등산로 구간을 걸으며 봄꽃을 즐길 수 있는 걷기행사가 진행되며, 등산로 곳곳에 버스킹 및 초청공연, 무료 사진촬영, 반려식물 나눔, 전시 체험부스 운영 등의 부대행사가 준비돼 다채로움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옥마정에서 펼쳐질 축하공연에는 ▲흑포어린이집 원아율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의 합창공연 ▲보령색소폰의 색소폰 연주 ▲보령청년앙상블 '심오' 의 현악 4중주 연주 ▲대천여고 댄스동아리 '플로리스' 의 댄스 무대 등이 경품추첨과 함께 펼쳐져 축제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축제는 참가자들이 자연을 몸소 느끼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로 황톳길을 걷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행사를 위해 지난 4월 초 420m 길이의 황톳길을 새롭게 단장해 쾌적한 등산로를 걸으며 봄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이기택 위원장은"옥마산에서 피어나고 있는 봄의 기운을 시민과 함께 느끼고 싶다"라며 "모두가 행사를 즐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옥마산은 춘하추동 사계 중 봄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 등산로 곳곳에 피어난 봄꽃의 정취를 느끼면 절로 행복해진다" 라며"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옥마산의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행사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마산은 명천동과 남포면, 성주면을 어우르는 산으로 패러글라이더 이륙장, 옥마정, 전망대, 솔숲 휴게공간 등의 시민 편의 시설이 있으며, 등산로를 따라 산 정상으로 향하면 보령시 전경을 비롯해 원산도 · 삽시도 등의 섬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김태선 기자

공주시 치매안심센터 '요기조기 기억지킴교실' 운영

공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4일, 경증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요기조기 기억지킴교실' 을 운영했다.

뇌운동학교와 치매가족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요기조기 기억지킴교실' 에는 관내 경증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 35명이 함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체험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관내 힐링센터를 방문해 다도 체험에 이어 그림분석 활동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활동을 가졌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번 활동으로 가족들과 함께 자연에서 힐링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미자 치매정신과장은 "다양한 기억지킴교실이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치매 중증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 등록이나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41-840-3315, 3320)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헬스투어리즘 모델개발 착수보고회

금산군은 지난 24일 금산다락원 만남의 집에서 헬스투어리즘 모델개발 기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헬스투어리즘 모델개발 사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의 컨설팅을 맡은 대진대 허훈 교수가 사업설명 및 체계 등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추진 목표는 관내 청정하고 건강한 이미지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문화, 음식, 역사, 숙박 등을 연결해 건강보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류형 관광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산의 고유한 관광브랜드 만드는 것이다.

특히, 최근 건강과 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트렌드에 발맞춰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올해 8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사례 조사, 헬스투어 모형 및 기본구상 정립, 데이터 수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수려한 금산의 자연환경과 헬스투어리즘을 연계시켜 치유관광의 도시 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군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우/리/동/네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

공주시,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통해 청년 대상 주거공간 40호실 순차 공급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원도심 내 방치된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청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청년 공유주택'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중동과 산성동 일원의 오래된 건물 6채를 매입한 뒤 4개 권역으로 나눠 원룸형과 게스트하우스형, 오피스텔형 등 청년 개개인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로 조성한다.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중동 지역 공유주택은 기존 모텔로 쓰이던 건물로 1층은 주차장과 모임실로 조성하고 2층에서 4층은 침실 11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뤄진 공유(셰어) 하우스형으로 운영된다.

이곳은 올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어 내년 말까지 4개 권역의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총 40호실)이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입주자는 준공 2~3개월 전 홍보를 통해 사전 모집한다. 월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10만원 내외로 책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공주시 거주자로, 공유주택에 입주하면 2년 거주한 뒤 1회(2년) 연장할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5월 21일까지 모집

서산시, 재산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도시 1억 7천 이하 월 30만 지원

충남 서산시가 저소득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 ·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가 매월 10만 원 ~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조건으로는 ▲3년간 근로상태 유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교육 10시간 및 사례 관리 상담 6회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10만 원, 30만 원)을 지원한다.

가입은 연령, 가구소득, 소득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 · 사업 소득 발생, 가구재산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도시 1억 7천 이하를 충족하면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연령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의 소득 발생, 가구재산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도시 1억 7천 이하를 충족하면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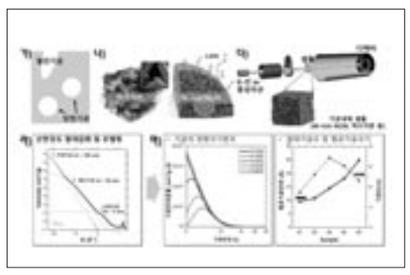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성환. 사회복지과장은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하는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충남대 진형민 교수, 이차전지 전극소재 소각산란 기반 나노기공정량 분석법 개발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논문 게재



충남대학교 유기재료공학과 진형민 교수팀과 고려대-KIST 윤영수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중성자/X선 소각산란을 이용해 이차전지 전극소재에 존재하는 나노크기의 기공을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충남대 진형민 교수는 해당 나노기공 정량 분석법을 활용해 리튬이차전지용 단결정 Ni-rich NCM 양극재 내 나노기공결함을 분석해 낸 데 이어, 차세대 나트륨전지용 하드카본(Hard Carbon) 음극재에서 나트륨이 저장되는 나노기공의 크기 및 비부피를 성공적으로 분석해 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IF: 32.5, JCR 상위 0.4%) 3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소재 내에 존재하는 기공은 형태에 따라 크게 외부에 노출된 열린기공(Open pore)과 소재 내부에 고립돼 존재하는 닫힌기공(Closed por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재 응용 분야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공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소재의 표면반응이 중요한 촉매나 슈퍼캐퍼시터 등의 경우 표면에 노출돼 있는 열린기공이 주요한 역할을 하므로 열린기공만 분석해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단결정 Ni-rich NCM의 경우 내부에 존재하는 닫힌기공 형태의 나노기공결함이 충·방전 과정에서 균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소재에 존재하는 나노기공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 기체흡탈착법(Gas absorption-desorption method)은 흡·탈착하는 기체가 드나들 수 있는 열린기공만 탐지할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닫힌기공을 포함 총 기공 분석이 불가능하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X-선/중성자 소각산란기술을 활용했다. 소각산란기술은 소재에 X선 혹은 중성자선을 투과시켜 발생하는 소각영역(low-angle)의 산란패턴을 관찰해 1-300nm 크기의 나노구조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소재를 투과하며 데이터를 획득하기 때문에 열린기공은 물론 닫힌기공까지 포함한 소재 내 총 기공의 크기분포 및 기공률을 정량분석 할 수 있는 고도분석 기술이다.

고려대-KIST 윤영수 교수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진형민 교수는 나트륨이차전지에서 음극재로 쓰이는 하드카본의 특이적으로 높은 저장용량을 규명하기 위해 나노기공분석법을 바탕으로 나트륨이온의 저장위치로 예상되는 나노기공의 크기분포 및 총 기공도를 성공적으로 분석했으며, 실제 나노기공의 비부피와 나트륨이온의 저장용량이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서 미세결함(기공)의 정량 분석을 주도한 진형민 교수는 "소각산란을 활용한 정량기공 분석은 1-300nm 범위의 기공을 갖는 모든 소재의 분석이 가능하며, 닫힌기공을 포함한 모든 기공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강력한 분석법으로, 이차전지 소재 외에 low-k 반도체 소재, 열 절연재, 세라믹 및 금속 소결체 등 기공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산업군에서 난제해결을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교통공사 · 백마강레저파크 업무협약

레저문화 확산과 직원복지 향상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와 백마강레저파크 발룬파크(대표 서정목)는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과 직원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대전 시민들이 인기 레포츠인 카라반 캠핑과 열기구 비행, 수상스포츠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사 직원들에게는 이용 시설에 대해서 소정의 할인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마강변에 위치한 백마강레저파크는 지난 24일 개장식을 갖고 최신식 카라반 오토캠핑,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열기구 비행, ATV, 꼬마기차, 썸머수영장 등 다양한 종합 레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청양군, 4월 28일 시작으로 7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생생국가유산활용사업 본격 시행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오는 28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

'생생 국가유산활용사업'은 국가유산에 내재한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국가유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 문화유산은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1984. 5. 17. 지정)로 면암 최익현 선생의 위패가 봉안돼있는 사당인 모덕사로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총 17회를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위기의 조선, 그리고 면암 최익현 ▲최익현과 역사 속으로 ▲우리가 가꾸는 면암의 발자취 3개로 이뤄져 있다. 참가를 원하는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역대 성웅 이순신축제 기록을 '한눈에'

민속박물관에서 이순신축제 및 순국제전 아카이브 전시 개막

아산시는 24일,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에서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이하 이순신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아카이브 전시회의 막을 올렸다.

이번 아카이브 전시회는, 다양한 이순신 축제 관련 자료와 시민들이 기증한 아산시의 역사 기록물 등을 공개함으로써 지역 축제를 추억하고 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전시자료는 지난해 열린 '제62회 이순신 축제' 및 '이순신 순국제전' 관련 내용을 아카이브형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축제의 역사(이순신축제의 연도별 기록 및 특별한 이슈) ▲축제의 기록(역대 이순신 축제 포스터 및 제1회 순국제전 포스터 전시) ▲축제의 과정(제62회 이순신 축제 프로그램별 자료, 순국제전 프로그램 자료) ▲축제의 참여(제62회 이순신 축제 및 순국제전 시민참여 결과물) 등을 선보인다.

또 제63회 이순신 축제 기획 및 운영 관련 시민의견 설문조사와 전시 만족도 조사 등을 다룬 '축제의 시작' 전시와 이순신 장군을 다룬 웹툰,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의 소품도 소개한다.

전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산시와 아산문화재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민참여 '전시의 한 페이지를 채워주세요' 공모 등 자료 수집과 검토 및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전시회 관람객들은 이순신 축제의 생생한 기록들과 아산시의 역사가 담긴 흑백사진들을 보며 추억의 시간여행을 즐겼다.

아산=리량주기자

예산군보건소, 쓰담쓰담 우리동네

명소 둘레길 걷기 행사 개최

예산군보건소는 오는 5월 25일 오전 10시 덕산면 소재 명상 치유 숲 길에서 우리 동네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명상 치유 숲길은 온천 둘레길(1100m), 잣나무 숲길(650m), 메타세쿼이아길(450m)로 총2.2㎞의 걷기 좋은 길로 소나무, 잣나무, 메타세쿼이아가 구간별 숲길을 이루고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장소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행사는 오전 10시 준비 체조를 시작으로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명상 치유 숲길 구간에서 걷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출발지는 예산군 관광 안내소 앞(덕산면 온천단지 2로 11)이다.

보건소는 걷기 행사 참가 희망자를 선착순 400명 모집하며, 희망자는 5월 17일까지 보건소로 사전 전화 접수를 하면 된다.

예산=박제화기자

독립기념관, 69개 가입기관 대상 공동기획전 · 순회전

전국 현충시설과 함께하는 협력사업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국가보훈부와 국내 현충시설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망을 구축하고, 2024년 현충시설 협력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초 실시한 거점별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협력 전시와 실무자 역량 강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한다.

협력전시는 공동 기획전과 연계 순회전으로 운영된다. 공동 기획전은 각 현충시설의 상황에 맞게 전시실을 활용한 기획전시와 이동·설치가 가능한 체험형 전시콘텐츠인 전시상자로 나누어 실시된다.

4~5월 중 공모를 통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여 12월까지 3개의 주제로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계 순회전은 전국의 6개 현충시설에서 전시상자를 설치하여 운영된다. 태극기, 의열단, 말모이 3종의 주제로 8~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0~11월에는 현충시설 실무자의 역사의식 제고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사적지 답사와 세미나를 운영한다.

천안=이정복기자

공주시 '웅진성 수문병 근무 교대식' 4월 27일부터 재개

공산성 상설프로그램 운영해 관광객에 백제문화 향유 기회 제공

공주시(시장 최원철)의 대표적인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인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이 오는 27일부터 재개된다.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은 세계문화유산인 백제 왕성 성곽을 지키는 수문병 모습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대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 총 5회 진행된다.

또한, 제70회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매일 개최된다. 단 혹서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운영을 중단한다.

올해는 수문병 근무교대식의 웅장한 연출을 위해 전문연기자 3명을 추가해 총 36명의 수문병이 수문병 교대식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수문병이 입는 병사복을 관람객들이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공주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백제의 역사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70회째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에 대비해 질적으로 더욱 향상되고 완성도 높은 역사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의 명성과 가치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은 백제 왕성 성곽을 지키는 수문병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매회 1천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안영진 대전식약청장, 유한킴벌리(주)

대전공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안영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사진)은 25일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율 도입 업체 중 '탑폰' 품목 적합판정을 받은 유한킴벌리(주) 대전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약외품 GMP 제도는 지난해 9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됐으며, 의약외품 GMP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 후 평가받을 수 있다.

안영진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외품의 제조·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전식약청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의 제조 및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GMP 자율 도입을 희망하는 관할 의약외품 업체를 대상으로 GMP교육,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청소년 도박중독을 막아라"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성희)는 지난 24일, 경천중학교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청소년 도박의 실태와 대처방법을 알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사)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이명식)는 지난 24일「2024 충북 어르신 건강대축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에 이은 대전세종충청 지역 내 두 번째 지지 선언으로, 이정수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지 선언은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 국민보건을 영리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

이명식 연합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조기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조속히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명의만 빌려 개설 및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자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 심사로 계류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면 불법개설기관을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강조해왔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정수 본부장은 "이번 (사)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의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선언 이후에도, 계속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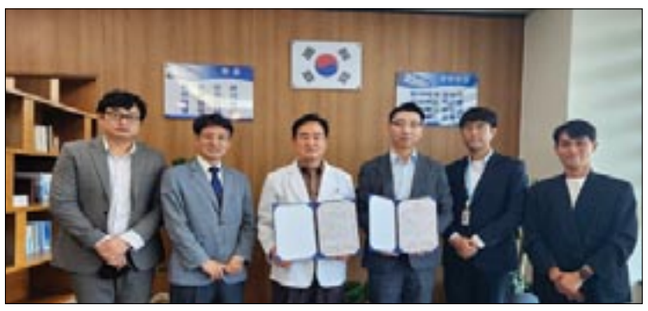
송병배기자

대전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육군 취·창업 지원 담당관 간담회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만희)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25일 신채호 홀에서 대전 및 충청권 육군 전직지원정책과 소속 취·창업 지원 담당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역군인 취업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美고교생 남서울대서 K-대학축제 즐겨 미국 뉴욕에서 온 고등학생 61명이 남서울대학교에 방문하여 한국의 K-대학축제를 즐겼다. 이들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데모크라시 프렙 차터 고등학교, 할렘 프렙 고등학교, 데모크라시 프렙 인듀어런스 고등학교, 브롱스 프렙 고등학교, 데모크라시 프렙 할렘 고등학교의 학생 61명과 교직원 14명으로 2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남서울대학교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했다.

목원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제4기 취업서포터즈 발대식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2024 취업서포터즈 4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호서대, 평택대와 '교류 · 협력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와 평택대학교(총장 이동현)가 24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호서대 강일구 총장, 강준모 대외협력부총장과 평택대 이동현 총장, 사공영호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진행됐다.



공주시니어클럽,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와 업무 협약 체결 공주시니어클럽(관장 김용학)은 지난 24일, 충청남도 공주의료원(병원장 임수흠)과 무연고 장례지원 사업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 '이순신 릴레이 인문학 콘서트' 개최 아산시는 24일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 학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순신 릴레이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주대 보건진료소,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 보건진료소는 지난 24일, 공주캠퍼스 마루공원 일원에서 2024년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맞아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증진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펼쳤다.

미스트롯3 고아인, 아산시 홍보대사 역할 '톡톡'

릴레이 버스킹서 연속 '앵콜' 받아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화려한 막이 오른 가운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펼쳐지는 릴레이 버스킹 첫날 '미스트롯3'에 참여했던 아산의 귀염둥이며 홍보대사인 10대 트로트 싱어 고아인 학생의 출현으로 공연장은 대 성황을 이루었다.

아인양은 경북 문경시에서 개최한 제1회 문경 트롯가요제에 출전해 대상을 차지했다. 본선 무대에 오른 12팀은 기성 가수 못지않은 무대 매너와 빼어난 가창력을 뽐냈으며 열띤 경연 결과 영예의 대상은 가수 송소희의 '배 띄워라'를 열창한 고아인이 차지했다.

또한 최근 종영한 '미스트롯3'에 출연해 실력은 기본이고 넘치는 끼와 신선한 매력을 갖춘 최정예 72인이 경쟁하는데 참가자들은 역대급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고아인은 '도찐개찐'을 시원한 성량으로 열창했고 올하트와 극찬을 받으며 먼저 2라운드 진출했다. 이어 2라운드에서도 올하트로 3라운드에 진출했다.

고아인의무대에장윤정 마스터는"아인이같은경우'미스트롯'나온어른들과겨뤄도전혀뒤쳐지지 않는다.완성형에가깝다.어린나이엔중저음에서흔들린다.아이라서 안되는게정상인데그게탄탄해서 깜짝놀랐다.음역대가전체적으로 낮은건가했는데그것도아니다.고음은시원하다"고칭찬했다.이어" 아인이같은아이를만나면우리집에데려가키우고싶다. 스승님집에서사사받듯이우리집에데려가 고싶을만큼훌륭하다"고심사평을 하기도했다.

아산시는 둔포면 염작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아인양을 지난 4월 8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날 아인양은 수리부엉이가 수놓인 아산시 시그니처 한복을 입고 '도찐개찐' 등 트로트 무대를 선보였다. 멋진 무대 매너와 10대 특유의 상큼 발랄함으로 연신 앵콜을 받아 5곡을 선사하며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순신 축제를 보기위해 서울에서 온 한 관객은 "트로트 장르를 10대 소녀가 어쩜 이리 잘하는지 흥겨움에 넋을 놓고 공연을 즐겼다.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관중석에는 무대를 즐기는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버스킹 무대를 마친 고아인 양은 관중들을 향해 "축제 첫날 저의 노래 선물 어떠셨어요? 아산시 홍보대사로 무대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살짝 긴장했는데, 보시는 분도 흥겨웠고 저도 무대를 즐겼습니다. 5일간 펼쳐지는 성웅이순신 축제에 많이 놀러 오시고요. 아산의 다양한 매력에도 풍당 빠져보세요"라며 첫 무대 소감을 밝혔다.

한편, 릴레이 버스킹은 성웅이순신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14시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펼쳐진다. 내일은 이순신가를 복원해 화재가 된 소리꾼 이봉근 명창의 릴레이 버스킹도 예정되어 있다. 성웅 이순신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서 '성웅 이순신 축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예산군, 관내 고교생에 대학 입시 온라인 멘토링 지원

예산군은 오는 5월부터 관내 고교생 16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학입시 온라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3월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 온라인 멘토링 사업 희망 학생을 조사했으며, 군 담당자와 대학 입시 온라인 멘토링 용역 업체, 진로 담당 교사와의 간담회를 마련해 사업을 안내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학생들은 멘토링 사이트에서 희망하는 대학교와 원하는 학과를 지정해 실제 재학 중인 대학 선배를 통한 ▲생활 기록부 관리 ▲내신 관리 ▲멘탈(정신건강) 관리 ▲진로 방향 설정 등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시간과 날짜를 사전 예약 후 전화를 통해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대학 선배와의 진로 · 진학 상담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입시 정보와 교통이 불편한 군 단위 지역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산=박제화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세종시설관리공단 주니어보드

조직성과 창출 위한 첫 번째 교류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태, 이하 대전공단)는 지난 24일 세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세종공단) 주니어보드와 함께 조직성과 창출을 위한 첫 번째 교류회를 가졌다. 주니어보드는 조직 내 젊은 연령층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회의기구이며, 양 기관은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안 공동심사 및 시설물 교차점검 활동 등 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양 기관 주니어보드 직원 30명이 참석하여 ▲양 기관 소개, ▲주니어보드 BP사례 공유, ▲AI 시대에 맞는 스마트 기술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역량교육은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행정에서 활용 가능한 챗GPT 및 메타버스 활용방법 등을 학습하고 금년 연말에는 스마트 기술 역량을 발휘한 아이디어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성과공유회 자리도 가지기로 했다.

김태선기자

금산군 제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80가구 밑반찬 지원 금산군 제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윤순용)는 지난 24일 지역 내 취약계층 80가구에 밑반찬을 지원했다.

충남세종농협, 고향주부모임과 김치나눔 봉사활동

충남세종농협(본부장 백남성)은 고향주부모임 충남세종도지회(회장 편임숙)와 공동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24일 펼쳤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도농협동 도시민 체험단'의 일환으로 청양군 가파 정보화마을에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는 충남세종농협, 농협청양군지부, 고향주부모임 시군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해 열무물김치를 담가 충남세종지역 200여 취약가정에 전달했다.

백남성 본부장은 "급격하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가 더 큰 부담이 될 소외계층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농협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한기자

도공 대전충남본부, HBPAY(주)와 이동로봇 활용

교통안전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신규성)는 HBPAY(주)와 25일 망향휴게소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한 교통안전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HBPAY(주)로부터 이동로봇을 무상으로 임대해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방주시) Good (졸음운전)Bye" 캠페인을 천안호두휴게소 등 3개 휴게소에서 3개월간 상시 진행하고, 별도의 경품 이벤트 또한 10회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동로봇 광고 스크린 화면에 송출되는 QR코드를 통해 휴게소 이용객들이 교통안전 상식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2023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84.4%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새마을운동 제창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충남새마을회, 도회장 취임식 및 재난재해발대식 개최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가 주관하고 충남도청(도지사 김태흠)이 주최하는 '새마을운동 제창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지난 24일 오후 충남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도지사, 조길연 도의회의장,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다수의 충남도의회 의원과 충남새마을회 단체장과 15개 시군에서 약600여명의 새마을회원이 참석했다. 올해는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맞이해 금년부터 새롭게 도새마을회 각 단체별 회장으로 취임하는 회장단의 취임식을 병행했다.

취임회장은 성낙구(64세) 제21대 충청남도새마을회장, 이갑복(68세) 제21대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협의회장, 박숙희(63세) 제19대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장, 이현주(59세) 제20대 직장새마을운동충남협의회장, 백지현(62세) 제20대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재난재해 새마을봉사단 발대식을 병행해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계승발전시키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실천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서 역할을 수행하고 연대와 협력,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재해 없는 충남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재난재해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성낙구 도새마을회장은 기념사 및 취임사에서 "충남새마을회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계승해 나가고 온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더욱 활성화될 것을 염원하는 뜻이 담긴 새마을의 날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다시 새마을운동의 붐을 일으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안전한 대한민국과 재난재해 없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세계속에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병배기자

특별기고

숯뱅이 두레와 무형문화유산 발굴 사업

이소라(민족음악연구소 대표)

2023년 9월에 제6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전 서구의 <숯뱅이두레>가 1등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2024년 1월에야 접하고 국악신문을 통해 고증에 관한 문제점과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후 이어지는 무형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우려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대전 중도일보의 3월 19일자 기사를 보면, 대전서구문화원은 스스로 고증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재청의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 육성 사업>에 <숯뱅이두레>를 신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대전 서구의 탄방동과 용문동 지역 두레 농요를 근거로 한다는 <숯뱅이두레>는 논산의 <백중놀이> 보유자이신 김용근(90세)의 고증에 오로지 의지하고 있다. 김용근 보유자는 대전이 아닌, 논산의 강경읍 출신이시다. 대전 서구의 탄방동과 용문동 지역 두레 농요를 고증할 수 있으려면 1960년대에 제초제의 전국적인 사용으로 실제 들에서 두레로 논을 매기 이전부터 대전 서구의 탄방동과 용문동 지역에서 두레농사를 지으며 농요를 불렀던 분(일반적으로 현130세, 또는 120세)이거나, 그러한 분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자료가 유일한 증거물이다.

필자는 1980년대에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의 읍면별 농요를, 특히 그 읍면의 논매기소리를 파악하기까지 그 지역의 토박이 농민을 찾아 고루고루 녹음한 바가 있다. 그 결실로서 가장 찾기 어렵고 소중한 논매기소리를 도별로 2023년 8월로 총12권 8,900쪽의 저서로 USB 첨부 음원과 함께 발간하였다. 대전서구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편은 [충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 하권에 실려 있다. 그 밖에 2000년대 전후의 대전서구문화원장과 함께 서구 지역의 민요를 녹음하여 2000년도엔 [민초의 소리], 1999년엔 [구봉산자락의 삶터]를 집필하였다. 대전지역 민요는 그 이전인 1991년도로부터도 4권이 더 있다. 대전지역 농요는 필자의 전국 방문 녹음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묵과할 수 없는 관심사이다.

대전지역에서 전국에 대전의 얼굴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빛나는 논매기소리는 유성구, 대덕구 등지의 미싱이 이다. <숯뱅이두레>는 이 빛나는 미싱이를 모른다. 현재 보호되고있는 대덕구의 <들말 들소리>에도 없다.

대전광역시에서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 육성 사업>에 고증 상의 문제가 명확하게 있는 <숯뱅이두레>를 단지 1등을 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신청할 계획이라면, 그것에 앞서, 유성구의 탑립동 유역이라는 고증이 확실한 배경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미싱이>를 전승하고 있는 <유성 농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사 설

임금체불, 실질적인 우선 변제를 위해

지난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체불임금은 5천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 급증했다. 코로나 대유행 때보다 높고,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경기 침체, 특히 건설업계 불황 탓이 크다. 경기 변동에 따른 부침과 경영난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상황은 악화일로다. 발생 원인별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 · 법 해석, 감정 다툼 등으로 인한 경우가 그것이다. 당연히 첫째 경우는 정부 방침처럼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이 요구된다. 임금을 체불하면 지연이자는 물론 부가금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의적인 경우 체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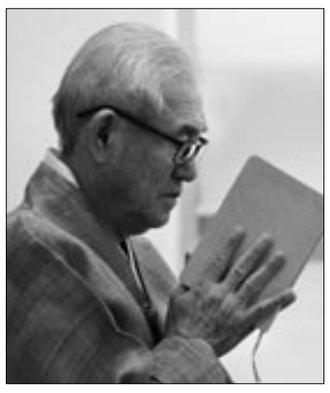
그럼에도 집중해야 할 건 제도 개선이다. 임금 체불의 80% 이상이 일시적 경영 악화와 도산 · 폐업 등 경제적 요인이다. 물론 그동안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임금채권 보장, 법률구조 지원,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고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효성 부재로 성과가 안 나온다. 단적인 예가 근로감독관제다. 지난 수년간 근로감독관은 꾸준히 증원됐다. 그런데 근로감독 목표치가 낮고, 이마저도 교육 · 홍보 · 자율 개선 지원 등 비감독 방식이 대부분인지라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비실효적인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 권리 구제는 물론 사전 예방, 제재 효과 측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러니 노동부 관계자 말처럼 선진국에선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우선 변제하는데, 우리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하게 되는 현상이 일반화됐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는 '선지원, 후제재' 원칙으로 갈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재설계돼야 하는 이유다.

천명일 '이야기 천자문'

鳥官人皇

鳥새조 官벼슬 관 人사람 인 皇임금 황



천명일

새의 벼슬로 관모를 삼은 인황은 황제이다

모든 관직은 그들의 관모가 닭벼슬을 흉내 내었기 때문에 조관鳥官이라 하여 벼슬이라 한다. 동양 인문의 시조는 황제黃帝이다. 그러므로 황제를 인황人皇이라 한다. 황제는 동양문화사에 큰 획을 그은 분이다. 그중에서도 의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병의 원인과 그 병을 치료 하는 방법과 기술을 밝혔으며, 이에 관한 책으로《황제내경黃帝內經》과

《소문영추素問靈樞》,《운기학편運氣學篇》이 있다.

필자가 저술한 <신침입문神鍼入門>도 황제가 남기신 경전의 은혜로 편찬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성애를 심도 있게 밝힌 임금 도 황제뿐이다.《소녀방중경素女房中經》이 그것이다. 물론 그 내용은 인 도의 까마수트라에서 빌려온 것이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받을 만한 업 적의 하나다.

필자는 섹스경인《소녀방중경》을 언젠가는 새롭게 해설하고 싶다.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소녀방중경》은 해설상 오해가 심하여서 누구 도 읽으면 곤란한 책이 되어버렸다. 고전인 이 책은 누군가 반드시 바로잡아 후학에게 물려주어야 할 성초월의 성경性經이다. 인생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근본 과제는 성이다. 성을 명상을 통해 초월의식으로 끌어 올려놓지 않으면 인간 영혼의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인생의 근본문제는 바로 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애의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감추는 것을 오히려 성도덕의 미덕처럼 착각하고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나온 경經은 종교의 성전聖典이나 경전經典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앞서 섹스경인 성경性經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고인들의 지혜에 경배해야 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강화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기 고

박공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회장

현행 법령에서는 의사약사 또는 법에서 정한 법인이 아니면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사'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또는 약국)을 개설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런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불필요한 검사'진료 등 과잉 의료행위, 특정 의약품 사용 유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민간보험회사의 100억 원 대 보험금을 챙기는 등 그 수익을 편취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775개소에 행정조사를 실시해 1,447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편취한 금액이 무려 3조 3,762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단의 수사의뢰 후 종결까지 약 11.5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사기간 중 폐업해 증거물을 없애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권확보가 어려워 환수된 금액은 2,335억 원(6.92%)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공단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빠른 수사와 기소를 위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간 공단은 정부 지원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약사, 수사전문가 등 약 3천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이 11.5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는 시급한 민생안건으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국민의 건강보호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세계속으로 뻗어가는 건강보험제도가 되길 염원한다.

한홍선 자원봉사자의 '봉사 이야기'

한홍선

한국문화해외교류협회 서울경기지회장 · 자원봉사위원

자원봉사문화의 지방자치적 정착화는 민주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로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자원봉사 전문기관, 즉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의체를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단위와 광역시 · 도 및 중앙에까지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 프로그램을 전문화, 체계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노력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주민의 현실적 요구를 기초로 하여, 산업화, 정보화, 개방화시대에 상응할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형성 및 조직화, 또는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통합적 홍보 · 교육 및 정보교환, 그리고 유도과정이 개발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선한 삶을 모방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여 청소년문제를 치유 · 예방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한국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세계 속의 한국인 청소년들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자원봉사활동 육성책은 한국인의 문화적 ·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극빈자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자선활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점차 지역사회의 전 주민의 발전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사회환경개선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측면과 해체되어가는 인간성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더불어 노력하고 나아가서는 더불어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한 민주복지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시민의 참여활동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봉사활동 참여와 함께 이를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목적을 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인간 상호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아름다운 자발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제도적으로 봉사에 대한 기록관리가 되어 명예적으로 보상되어 자긍심을 부여해야 한다. 1365자원봉사포털의 적극적인 운영속에 자원봉사자의 시간을 적립하는 것도 참여율을 높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시의 향기

현영길 시인의 '서울찬가'

현영길 作

새벽길

새벽길
찬바람나뭇가지 스치고
먼 달임 바람 얼굴 가린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잎 보이지 않고
어색한바람만 주위 맴돈다.
모두 잠든 새벽녘 넌, 잠 없구나?
바람 함께 걷다 보면 멀리서 기다리는 너
고요히 나를 반기는구나!
버스 바퀴 바람 잊은 채
벗 되어준다.

▶시작 노트: 찬 바람 새벽녘 길 걷다 보면 고요한 시간 날 등 뒤에서 밀어주는 너 넌, 잠도 없나 보구나! 오늘도 나의 벗 되어 주는 하루 새벽길 반갑구나!

시의 향기

노중하 시인의 '봄내골 사랑'

노중하 作

갈대밭

물가의 습한 지역 우거진 갈대숲
녹색의 푸른 물결이 사라진 가을
초가지붕 이엉 상품으로 변하였네!
외로운 참새가 윙크한다.

풍파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성장한 줄기
부끄러운 듯 수줍어하면서 맞이하는 참새
휘영청 늘어지면서 포용하는 너그러움
사랑을 속삭이는 숲속의 애정

시기 질투하는 멧새가 날아온다.
비좁은 숲속을 안방처럼 들락날락
간지러워 깔깔 웃고 있는 찰나
통통하게 살이 찐 놈이 엎구리를 치네

날씬하고 세련된몸매의 가냘픈 나무
힘에 겨워 휘어청 고개 숙여 인사하네!
시기 질투하는 바람이 못살게 하는구나!
서로가 부둥켜안고 사랑을 맹세한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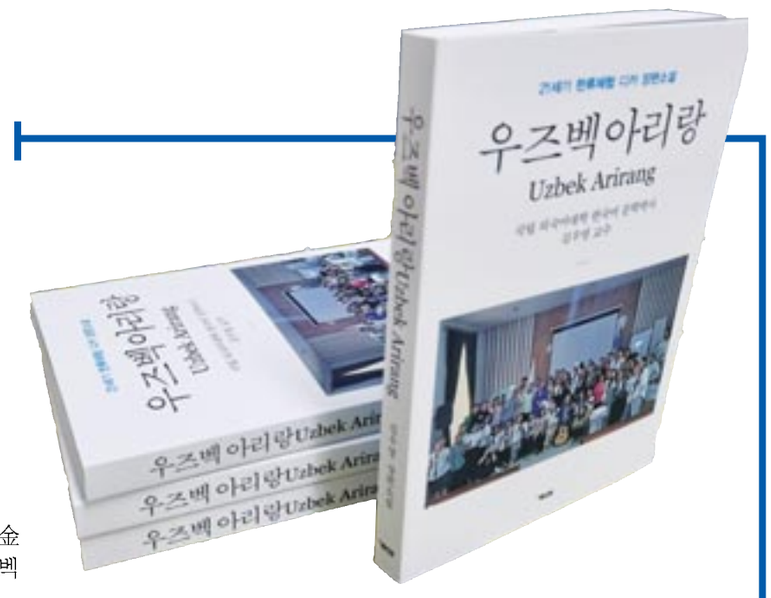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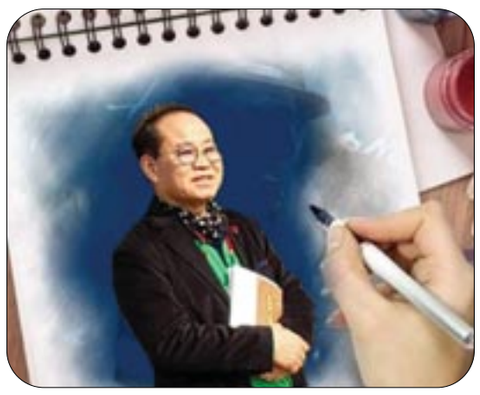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 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 · 김성식 · 김종복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 5000원

등록번호 : 대전가 00017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우영 교수 한류체험 디카 장편소설 '우즈벡 아리랑' 27일 출판회

서대전역광장 신쭈꾸황식당에서 열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탄드 국립 외국어대학 김우영 교수의 21세기 국내 · 외 최초 한류체험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216쪽/ 값19,000원/ 도서출판 개미/ 전화 한국 서울 02-704-2546/ 팩스 02-714-2365/ 칼라본)』출판기념회가 27일(토)서대전역광장 신쭈꾸황식당에서 열린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국립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지도하고 귀국한 문학박사 김우영 교수. 중앙아시아대륙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류(韓流, The korean wave)가 확산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한류체험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은 그간 출간한 저서가 총40권이라는 한국문단의 기념비적인 불꽃 기염을 토하는 중견작가의 모습에서 중후함이 더하고 있다.

특히,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은 국내 · 외 최초로 선 보인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초미의 관심사로서 한류 확산의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맞고 있다. 요컨대 '읽는 시대에서 보는 공감의 시대 디카 소설세상' 을 만나는 것이다.

국내 · 외 처음 선 보이는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의 저자 김우영 교수는 출간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년 전 직장생활을 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년 후 20여 년을 어떻게 보낼까……? 등산 다니며 막걸리나 마시는 무위도식(無爲徒食)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2005년 시작한 자원봉사는 동네 경로당이었어요. 어르신들 간식거리를 들고 가서 말벗하며 머리 염색하기, 이웃집 대문과 울타리 페인트 칠하기, 장판교체 등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대전중구다문화교회 다문화한국어교실로부터 대전에 이주해온 필리핀, 몽골 여성 한국어를 지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강단에 섰어요. 이어서 기왕 한국어를 지도할 바에는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라는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최태호 교수님' 제안에 따라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그 후 모교에서 강단에 서다가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 '코이카' 부름을 받고 2019년 머나먼 남극 땅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비행기를 2일간 타고 날아갔어요. 그곳 외교대학에서 한국어를 지도하였어요. 이어 2022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주립 대학을 방문하였어요. 그리고 2023년 사마르칸드 국립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최일선에서 발로 쓴 감동의 휴먼 스토리(Human Story)가 한류(韓流, The korean wave)체험『우즈벡 아리랑』입니다."

20년 전 동네 이웃 자원봉사로 시작하여 필리핀, 몽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전 세계를 한 몸에 안고 휘감고 흐르는 메카니즘Mechanism)이 오늘 만나는 지구촌 나그네의 한류체험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

특히 이번에 국내 · 외 처음 선 보이는 한류체험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의 부제(副題)로 '읽는 시대에서 보는 공감의 시대 디카 소설세상'은 21세기 영상미디어 너스 트랜드(Nurse Trend)시대의 표상이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에서 30여 년간 국내 · 외의 많은 서점 공급망을 운영하는 '도서출판 개미' 의 대표 '최대순 시인' 은 이번 김우영 교수의 한류체험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출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김우영 교수님은 알게된 때는 30년 전 서울 을지로통 출판사 전성시대였어요! 머리가 새까만 청년의 김우영 작가는 오로지 성실과 노력파였어요. 아니 문학을 세상의 요람으로 여기고 '즐기는 그런 막걸리 풍류객' 이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남 다르게 깊고 넓어 앞으로 사고를 칠 것(!?)이라고 예감했는데 딱 들어 맞았어요. 20여년 오로지 한국어 자원봉사로 전 세계를 누비며 한류 확산의 선봉자 국위선양 애국자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내 · 외에 처음 시도하는 디카 장편소설 시장을 개척하는 선각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현장체험의 문장 중간 중간에 적절히 사진을 삽입 편집하여 올 칼라 고급용지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 대륙에 춘사월 봄바람이 이는 계절. 우즈베키스탄 들녘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봄소식 따라 김우영 교수의 21세기 한류체험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휴먼스토리 마당에 국내 · 외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어 지난 2014년 대전다문화교회 다문화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며 김우영 교수를 만나게 된 대전 '한진호 소설가' 는 김우영 교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2014년 5월 대전 중구청에 한국어 강사를 요청 김우영 강사를 처음 소개 받았어요. 그 후 다문화센터 한국어교실을 4년동안 열심히 운영하며 필리핀, 몽골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하였어요. 이에 따라 이주민의 한국어 학습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 뿐만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진호 약사는 시인과 소설가로 등극하였지요. 또한 시집『몽돌의 노래』2권, 수필집『보문산에 오르며』1권, 장편소설집『유턴』2권 총5권의 저서를 보유하였어요. 그리고 김우영 작가는 한국어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대학교수, 코이카 파견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이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여 국위선양 후 21세기 한류체험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을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국어의 괄목할만한 효과라고 볼 수 있지요. 특히 이번에 국내 · 외에 처음 출판한다는 '디카 장편소설 시장 개척' 은 역시 김박(金博)다운 창의적 혁신이어요.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출간을 축하합니다."

대전 '중앙시장 낮술 동지' '동료 소설가' 로 의기투합하는 장편소설『평행선』의 저자 홍키호테 '홍경석 작가' 는 이렇게 말한다.

"20년 전 머리숱이 새까맣던 김우영 작가는 동네 경로당 할머니 머리 염색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자신이 머리가 하얗게 되어 염색을 안하고 대학 강단에 서면 할아버지 소리가 듣기 싫어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한다고 하네요? 인간사 새옹지마(塞翁之馬)를 스스로 체험한 셈이지요. 그런 김 교수님이 20여년 국내와 해외를 다니며 한국어 학습이라는 외롭고 힘든 자원봉사의 길을 호연지기(浩然之氣)로 걸어감을 경의롭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20년 한국어 국위선양의 결실 21세기 한류체험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을 출간은 그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읽는 소설에서 보는 소설' 이라는 영상미디어 시대의 저서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부디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간 김 교수님이 부재로 대전 중앙시장이 텅빈 것 같았아요? 이제 잘 가는 먹자골목에서 '건배' 할 일만 생겼네요. 허허허---!"

▶한국어 문학박사 김우영(金禹榮)교수의 삶 이야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 2019년~2024년 한국해외봉사단 코이카~아프리카 탄자니아 외교대학 대외관계연구소 한국어학과 교수
○ 연세대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 중부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학위 취득, 중부대 한국어학과 외래교수
○ 1988년~2016년까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서 교육행정직과 일반 행정직공무원 30년 근무 퇴직
○ 한국어 연구서『한국어 이야기』장편소설집『코시안(Kosian)』『아프리카 탄자니아~중앙아시아 우즈벡까지』『내 사랑 Uz사마르칸드 Zo'r』등 저서 총40권 출간
○한국문인협회한국소설가협회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 한국문화해외교류협회 상임대표대전중구문인협회 회장
○2013년 중국 칭다오문학상 · 2018년 호주문학상 수상
○2022년 세계IBA 국제비즈니스대상 출판부분 당선 수상
○김우영 작가 · 김애경 성악가 부부듀엣 KBS-TV 아침마당 2회 출연
○편지통 siin7004@hanmail.net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in7004
○손에 들고 다니는 목소리 010-6477-1744

▶21세기 한류체험 디카 장편소설『우즈벡 아리랑』구입문의

도서출판 개미 대표 최대순 시인
전화 한국 서울 (02)704-2546/ 팩스 (02)714-2365
e-mail lily12140@hanmail.net
주소 : (04175)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B-103(마포동, 한신빌딩)